

제5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②	⑤	②	①	③
6	7	8	9	10
③	②	⑤	③	④
11	12	13	14	15
③	①	④	③	④
16	17	18	19	20
②	⑤	②	③	④
21	22	23	24	25
④	③	①	①	②
26	27	28	29	30
④	①	①	④	①
31	32	33	34	35
⑤	⑤	⑤	①	⑤
36	37	38	39	40
②	④	⑤	①	⑤
41	42	43	44	45
⑤	④	②	④	②
46	47	48	49	50
③	④	③	⑤	④

01 -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1. 밑줄 그은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벌였다.
- ②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 ③ 명도전을 이용하여 중국과 교역하였다.
- ④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
- ⑤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여 식량을 저장하였다.

정답> ②


'청주시 오송읍에서 뎨석기 다수 발굴'이라는 제목 아래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에서 주먹도끼, 찌개 등 이 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뎨석기가 다수 발굴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번 발굴로 청주시 일대에 이 시대의 유적이 다수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자료 속에서 밑줄 그은 '이 시대'는 구석기 시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은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벌인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 ③ 명도전을 이용하여 중국과 교역한 것 역시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 ④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벼를 수확한 것은 청동기 시대의 일이다.
- ⑤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여 식량을 저장한 것은 신석기 시대의 일이다.

02 - 고조선

2.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뮤지컬 개천 開天

모시는 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가)을/를 건국한 단군왕검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탄생하였습니다.

- 순서 -

1막 환웅이 신단수에 내려오다
2막 웅녀, 환웅과 혼인하다
3막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우다

• 일시: 2022년 00월 00일
오후 3시 / 오후 7시

• 장소: △△아트홀

- ①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 ②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 ③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12배로 갚게 하였다.
- ④ 왕 아래 상가, 대로, 패자 등의 관직이 있었다.
- ⑤ 전국 7웅 중 하나인 연과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

정답> ⑤

'뮤지컬 개천(開天)'이라는 제목 아래 모시는 글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가)을/를 건국한 단군왕검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탄생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순서로 '1막 환웅이 신단수에 내려오다'가, '2막 웅녀, 환웅과 혼인하다'가, '3막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우다'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고조선임을 알 수 있다.

고조선은 기원전 3세기경 중국의 전국 7웅 중 하나인 연과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연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이다(매년 10월).
- ②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한 나라는 삼한이다.
- ③ 남이 물건을 훔쳤을 때는 12배로 갚게 한 나라는 초기 국가, 부여와 고구려이다(1책 12법).
- ④ 왕 아래 상가, 대로, 패자 등의 관직이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고구려이다. 고구려에는 왕이 있고, 벼슬로는 상가·대로·패자·고추가·주부·우태·승·사자·조의·선인이 있으며, 신분의 높고낮음에 따라 각각 등급을 두었다.

03 - 사비성 함락(백제 멸망)

3.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대야성에서 패하였을 때 도독인 품석의 아내도 죽었는데, 바로 춘추의 딸이었다. [김춘추가] 말하기를, "신이 고구려에 사신으로 가서 군사를 청하여 백제에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라고 하자 왕이 허락하였다.

(나) 복신은 일찍이 군사를 거느렸는데, 이때 승려 도침과 함께 주류성에 근거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왜국에 있던 왕자 부여풍을 맞이하여 왕으로 세웠다.

- ① 당이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다.
- ② 나당 연합군이 사비성을 함락하였다.
- ③ 신라가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④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 ⑤ 백제와 왜의 연합군이 백강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정답> ②

(가)에 '대야성에서 패하였을 때 도독인 품석의 아내도 죽었는데, 바로 춘추의 딸이었다. [김춘추가] 말하기를, 신이 고구려에 사신으로 가서 군사를 청하여 백제에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라고 하자 왕이 허락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신라의 대야성이 백제에게 함락된 것은 신라 선덕여왕 11년인 642년의 일이다.

(나)에는 '복신은 일찍이 군사를 거느렸는데, 이때 승려 도침과 함께 주류성에 근거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왜국에 있던 왕자 부여풍을 맞이하여 왕으로 세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복신(?~663)과 도침(?~661)이 (왕자)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왜국에 사신을 보내 군사 지원과 함께 부여풍의 귀국을 청한 것은 660년(태종 무열왕 7) 10월의 일이다(의자왕의 다섯째 아들인 부여풍이 일본에서 5천여 지원군과 함께 실제로 귀국한 것은 이듬해인 661년 9월).

나당 연합군이 사비성을 함락한 것은 660년 7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안동도호부가 설치된 것은 나당 연합군에 의해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인 668년 8월의 일이다. 이에 고구려는 9도호부 42주 100현으로 나뉘지고, 당의 장수 설인귀(614~683)가 도호부사로 임명되었다.
- ③ 신라가 매소성 전투에서 당에 승리한 것은 675년(문무왕 15) 9월의 일이다. 이듬해인 676년 11월 기벌포 전투[해전]에서 신라가 다시 승리함으로써 신라는 최종적으로 당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물리칠 수 있었다.
- ④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한 것은 400년(고구려 광개토대왕 10, 영락 10)의 일이다.
- ⑤ 백제와 왜의 연합군이 백강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663년 9월의 일이다.

04 - 연개소문

4.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그림은 명 대 간행된 소설에 실린 『막리지비도대전』입니다. 그림에서 당 태종을 향해 위협적으로 칼을 날리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 인물이 (가)입니다.

(가)은/는 영류왕을 시해하고 대막리지가 되어 권력을 장악한 뒤, 당의 침략을 격퇴하였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당시 중국인들이 그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 ① 천리장성 축조를 감독하였다.
- ②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막아냈다.
- ③ 등주를 선제 공격하여 당군을 격파하였다.
- ④ 황산벌에서 계백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쳤다.
- ⑤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①

왼쪽 말풍선에 '이 그림은 명 대 간행된 소설에 실린 『막리지비도대전』입니다. 그림에서 당 태종을 향해 위협적으로 칼을 날리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 인물이 (가)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가)은/는 영류왕을 시해하고 대막리지가 되어 권력을 장악한 뒤, 당의 침략을 격퇴하였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당시 중국인들이 그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인물'은 고구려의 연개소문(?~665)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연개소문은 642년에 정변을 통해 집권하기 전에 천리장성 축조를 감독하였다.

오답 해설>

- ②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막아낸 인물은 을지문덕(?~?)이다[살수대첩, 612(고구려 영양왕 23), 수의 2차 침입 시].
- ③ 등주를 선제공격하여 당군을 격파한 인물은 장문휴(?~?)이다(732, 발해 무왕 14).
- ④ 황산벌에서 계백(?~660)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친 인물은 신라의 김유신(595~673)이다(660.7).
- ⑤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황해도 한성(지금의 재령)에서] (고구려) 부흥 운동을 전개한 인물은 검모잠(?~670)이다(670). 검모잠은 당의 정벌대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안승에게 피살되었다.

05 - 백제 성왕의 활동

5. 밑줄 그은 '왕'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왕 31년 7월에 신라가 동북쪽 변경을 빼앗아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다. …… [이듬해] 7월에 왕이 신라를 습격하려고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狗川)에 이르렀다. 신라의 북병이 일어나 더불어 싸웠으나 [적의] 병사들에게 살해되었다.

- 『삼국사기』 -

- ①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 ②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 ③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 ④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하였다.
- ⑤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정답> ③

'왕 31년 7월에 신라가 동북쪽 변경을 빼앗아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듬해] 7월에 왕이 신라를 습격하려고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狗川)에 이르렀다. 신라의 북병이 일어나 더불어 싸웠으나 [적의] 병사들에게 살해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자료 속 밑줄 그은 '왕'은 백제의 제26대 국왕인 성왕(재위 523-554)을 가리킨다.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피살된 것은 554년(성왕 32)의 일이다.

백제 성왕은 재위 16년인 538년에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오답 해설>

- ① (전북)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한 (백제의) 왕은 무왕(재위 600-641, 제30대)이다(639, 무왕 40).
- ②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백제의) 왕은 근초고왕(재위 346-375, 제13대)이다(371, 근초고왕 26).
- ④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한 (백제의) 왕은 개로왕(재위 455-475, 제21대)이다(472, 개로왕 18).
- ⑤ 동진에서 온 (인도 승려)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한 (백제의) 왕은 침류왕(재위 384-385, 제15대)이다(384, 침류왕 원년).

06 - 신라의 문화유산(석굴암 본존불)

6.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1점]



정답> ③
'메타버스 서라벌 오픈!'이라는 제목 아래 '(가)의 수도 경주의 문화유산을 아바타로 생생하게 체험해 보세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벤트 1로 '첨성대에서 별자리 찾아보기'가, 이벤트 2로 '포석정에서 인증샷 찍기'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신라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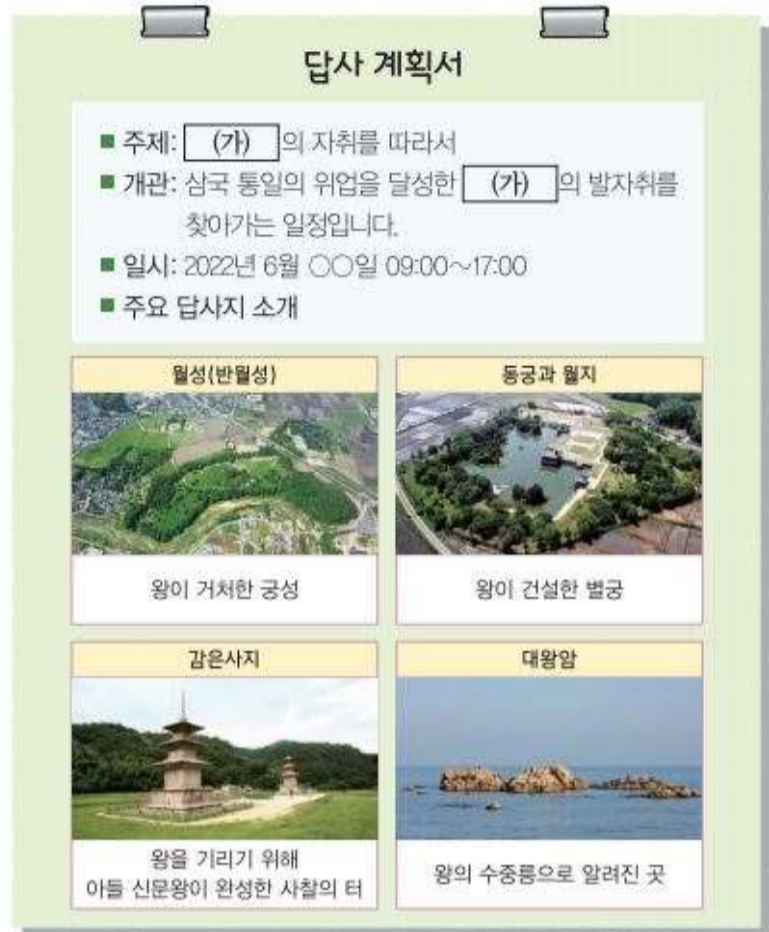
선지 ③은 신라의 석굴암 본존불이다. 신라 경덕왕 10년(751) 불국사가 창건될 시기에 같이 조성되었다. 경북 경주의 토함산 정동쪽에 위치한다.

오답 해설>

- ①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출토된 (금관)가야의 철제 판갑옷과 투구이다.
- ② 발해의 이불병좌상이다. 석가불(석가여래불)과 다보불(다보여래불)이 만나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불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④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백제의 금동 대향로이다(7세기 초). 뚜껑 꼭대기에 봉황이 부착되어 있고 뚜껑에는 23개의 산들이 4~5겹으로 첩첩산중을 이루고 있다. 도교와 불교가 혼합된 백제 금속공예 최고의 걸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 ⑤ 고려 전기에 송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다각다층형 석탑인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이다(국보 제48-1호).

07 - 신라 문무왕의 업적

7.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하였다.
- ②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 ③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 ④ 인재 등용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 ⑤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정답> ②
'답사 계획서'라는 제목 아래 주제로 '(가)의 자취를 따라서'가, 개관으로 '삼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가)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일정입니다'가 나와 있다. 이어 왕이 거처한 궁성으로 월성(반월성)이, 왕이 건설한 별궁으로 동궁과 월지가, 왕을 기리기 위해 아들 신문왕이 완성한 사찰의 터인 감은사지가, 왕의 수중릉으로 알려진 곳으로 대왕암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자료 속 '(가) 왕'은 신라의 제30대 국왕인 문무왕(재위 661-680)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문무왕은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673. 문무왕 13).

오답 해설>

- ①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한 것은 신라 진흥왕 37년인 576년의 일이다.
- ③ 이차돈(506~527)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것은 신라 법흥왕 14년인 527년의 일이다(*528년 공인설 있음).
- ④ 인재 등용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실시한 것은 (통일) 신라 원성왕 4년인 788년의 일이다.
- ⑤ (신라의 대국통) 자장(590~658)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된 것은 선덕 여왕 15년인 646년의 일이다(건의한 것은 선덕 여왕 12년인 643년).

08 - 통일 신라 시대의 경제 상황

8.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장보고가 귀국 후 왕을 알현하여, “은 중국이 우리나라 사람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청해에 진을 설치하여 해적이 사람을 중국으로 잡아가는 것을 막으십시오.”라고 아뢰었다. 왕이 장보고에게 군사 1만 명을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 ① 은병이 화폐로 제작되었다.
- ② 낙랑과 왜에 철을 수출하였다.
- ③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 ④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 ⑤ 울산을 통해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하였다.

정답> ⑤

'장보고가 귀국 후 왕을 알현하여, 은 중국이 우리나라 사람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청해에 진을 설치하여 해적이 사람을 중국으로 잡아가는 것을 막으십시오'라고 아뢰었다. 왕이 장보고에게 군사 1만 명을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것은 (통일) 신라 흥덕왕 3년인 828년의 일이다[~851(문성왕 13)].

(통일) 신라 시대에 울산을 통해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하였다. (통일) 신라의 최대 무역항은 울산항이었고, 당항성과 영암도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당항성은 중국의 산둥반도와 연결된 일종의 무역 북로, (전남) 영암은 중국의 양쯔강 지역과 연결된 무역 남로의 무역항이었다. 9세기 전반에는 청해진도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활구라고도 불린) 은병이 화폐로 제작된 것은 고려 숙종 6년인 1101년의 일이다.
- ② 낙랑과 왜에 철을 수출한 나라는 가야[변한]로, 초기 국가 시대*의 일이다.
*초기 국가 시대: 여러 설이 있으나 대략 기원전 3세기경에서 기원후 3세기경까지를 이른다.
- ③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던 것은 고구려로 초기 국가 시대의 일이다.
- ④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09 - 발해

9.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곳은 해동성국이라 불렸던 (가)의 온돌 유적으로 함경남도 신포시 오매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적에서는 열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고래의 숫자를 늘려서 난방의 효율을 높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이/가 고구려의 온돌 양식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 ① 9서당과 10정을 설치하였다.
- ② 광평성 등의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 ③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 ④ 육살, 처려근지 등의 지방관을 두었다.
- ⑤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하였다.

정답> ③

'이곳은 해동성국이라 불렸던 (가)의 온돌 유적으로 함경남도 신포시 오매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유적에서는 열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고래의 숫자를 늘려서 난방의 효율을 높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이/가 고구려의 온돌 양식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발해를 알 수 있다.

발해는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주자감은 발해의 최고 교육 기관으로, 왕족과 귀족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으며 당 유학생도 많았다(국립 대학과 같은 전문 기관).

오답 해설>

- ① (군사 조직으로) 9서당과 10정을 설치한 국가는 (통일) 신라이다(685, 신라 신문왕 5).
- ② (최고 중앙 관서인) 광평성 등의 정치 기구를 마련한 국가는 후고구려이다(904).
- ④ (지방의 여러 성에) 육살, 처려근지 등의 지방관을 둔 국가는 고구려이다.
- ⑤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한 국가는 백제이다. 백제는 무령왕 대(재위 501-523, 제25대)에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였다.

10 - 고려 초의 주요 제도들

10.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 (가) 처음으로 직관(職官)과 산관(散官) 각 품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다. …… 과등(科等)에 미치지 못한 자는 모두 전지 15결을 지급하였다.
- (나) 역분전을 제정하였는데, 통일할 때의 조신(朝臣)이나 군사들은 관계(官階)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의 선악과 공로의 크고 작음을 보고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 (다) 쌍기가 의견을 올리니 처음으로 과거를 시행하였다. 시(詩)·부(賦)·송(頌) 및 시무책으로 시험하여 진사를 뽑았으며, 겸하여 명경업·의업·복업 등도 뽑았다.
- (라) 왕이 말하기를, "비록 내 몸은 궁궐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백성에게 치우쳐 있다. …… 이에 지방 수령들의 공(功)에 의지해 백성들의 소망에 부합하고자 12목 제도를 시행한다."라고 하였다.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나) - (가) - (라) - (다) ④ (나) - (다) - (가) - (라)
 ⑤ (다) - (라) - (나) - (가)

정답> ④

(가)에 '처음으로 직관(職官)*과 산관(散官)** 각 품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다. …… 과등(科等)에 미치지 못한 자는 모두 전지 15결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 경종 원년인 976년에 실시된 시정 전시과를 가리킨다.

*직관: 직위(職位)와 관등(官等)을 줄여서 일컫는 말. 일정한 벼슬은 없고 관계(官階)만 가지고 있는 산관(散官)에 대한 대칭으로서, 일정한 실직(實職)을 가진 관원(官員)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직사관(職事官)이라고도 한다.

**산관: 고려·조선 시대에 일정한 관직이 없고 관계만을 보유하던 관원. 산계(散階)라고도 한다.

(나)에는 '역분전을 제정하였는데, 통일할 때의 조신(朝臣)이나 군사들은 관계(官階)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의 선악과 공로의 크고 작음을 보고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역분전이 제정된 것은 고려 태조 23년인 940년의 일이다.

(다)에는 '쌍기가 의견을 올리니 처음으로 과거를 시행하였다. 시(詩)·부(賦)·송(頌) 및 시무책으로 시험하여 진사를 뽑았으며, 겸하여 명경업·의업·복업 등도 뽑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과거제를 처음 시행한 것은 고려 광종 9년인 958년의 일이다.

(라)에는 '왕이 말하기를, 비록 내 몸은 궁궐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백성에게 치우쳐 있다. …… 이에 지방 수령들의 공(功)에 의지해 백성들의 소망에 부합하고자 12목 제도를 시행한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12목을 설치하여 지방관(목사)을 파견한 것은 고려 성종 2년인 983년의 일이다.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다)-(가)-(라)'가 된다.

11 - 고려 숙종이 추진한 정책

11.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천수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② 관학을 진흥하고자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③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④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⑤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유학 교육을 장려하였다.

정답> ③

왼쪽 말풍선에 '신이 싸움에서 진 이유는 적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부대의 창설이 필요합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그렇다면 그대의 의견대로 별무반을 창설하여 여진과 맞서도록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는 곧 윤관(?~1111)의 건의로 고려 숙종 9년인 1104년에 조직된 별무반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한 것은 고려 숙종 대(재위 1095-1105, 제15대)이다. 주전도감을 설치한 것은 숙종 2년인 1097년의 일이고, 해동통보를 발행한 것은 숙종 7년인 1102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천수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은 고려 태조 원년인 918년의 일이다.
 ② 관학을 진흥하고자 양현고를 설치한 것은 고려 예종 14년인 1119년의 일이다.
 ④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한 것은 고려 광종 7년인 956년의 일이다.
 ⑤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유학 교육을 장려한 것은 고려 공민왕 16년인 1367년의 일이다.

12 - 묘청의 난

12.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이자겸과 척준경이 왕을 위협하여 남궁(南宮)으로 거처를 옮기게 하고 안보린, 최탁 등 17인을 죽였다. 이 외에도 죽인 군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나) 이의방과 이고가 정중부를 따라가 몰래 말하기를, "오늘날 문신들은 득의양양하여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음식을 배불리 먹는데, 무신들은 모두 굶주리고 고달프니 이것을 어찌 참을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 ① 김부식이 묘청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 ②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을 제거하였다.
- ③ 망이·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하였다.
- ④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 ⑤ 최충현이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하였다.

정답> ①

(가)에 '이자겸과 척준경이 왕을 위협하여 남궁(南宮)으로 거처를 옮기게 하고 안보린, 최탁 등 17인을 죽였다. 이 외에도 죽인 군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이자겸의 난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126, 고려 인종 4).

(나)에는 '이의방과 이고가 정중부를 따라가 몰래 말하기를, 오늘날 문신들은 득의양양하여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음식을 배불리 먹는데, 무신들은 모두 굶주리고 고달프니 이것을 어찌 참을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무신 정변 직전의 일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170, 고려 의종 24).

김부식(1075~1151)이 묘청(?~1135)의 반란을 진압한 것은 고려 인종 13년인 1135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② 강조(?~1010)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1009)을 제거하고 목종(재위 997-1009, 제7대)까지 폐위시킨 것은 1009년의 일이다(강조의 정변). 거란의 제2차 침입의 빌미가 되었다.
- ③ 망이·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한 것은 고려 명종 6년인 1176년의 일이다(공주 명학소의 난, 망이·망소이의 난).
- ④ 서희(942~998)가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6주를 확보한 것은 고려 성종 12년인 993년의 일이다.
- ⑤ 최충현(1149~1219)이 (이의민을 축출하고 집권한 직후)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한 것은 고려 명종 26년인 1196년의 일이다.

13 - 고려 공민왕 대의 사실

13. 밑줄 그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얼마 전에 왕께서 기철과 그 일당들을 반역죄로 숙청하셨다고 하네.

나도 들었네. 정동행성 이문소도 철폐하셨다고 하더군.



- ① 경기에 한하여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 ② 정지가 관음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 ③ 국정 총괄 기구로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 ④ 신돈을 중심으로 전민변정 사업이 추진되었다.
- ⑤ 만권당이 설립되어 원과 고려의 학자가 교류하였다.

정답> ④

왼쪽 말풍선에 '얼마 전에 왕께서 기철과 그 일당들을 반역죄로 숙청하셨다고 하네'라는 말이 나와 있다. 오른쪽 말풍선에는 '나도 들었네. 정동행성 이문소도 철폐하셨다고 하더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관련 내용은 고려 공민왕 5년인 1356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왕은 곧 고려의 제31대 국왕인 공민왕(재위 1351-1374)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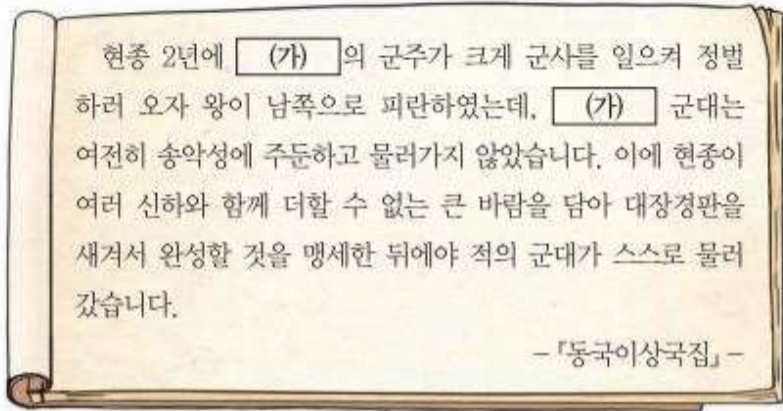
신돈(?~1371)을 중심으로 전민변정 사업이 추진된 것은 공민왕 15년인 1366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조준 등의 건의로} 경기에 한하여 과전법이 실시된 것은 고려 공양왕 3년인 1391년의 일이다(1391.5).
- ② 정지(1347~1391)가 관음포*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고려 우왕 9년인 1383년의 일이다(1383.5)(관음포 대첩, 남해 대첩).
*관음포: 경상도 남해현 북방, 현 경남 남해군 고현면 북쪽 바닷가에 있는 포구
- ③ 국정 총괄 기구로 (집권자인 최충현에 의해) 교정도감이 설치된 것은 고려 희종 5년인 1209년의 일이다.
- ⑤ (일종의 독서당인) 만권당이 (상왕이 된 충선왕에 의해) 원의 연경[지금의 북경]에 세워진 것은 고려 충숙왕 원년인 1314년의 일이다. 충선왕은 익재[역옹] 이제현(1287~1367)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을 만권당으로 불렀다.

14 -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

14.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 ②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 ③ 개경을 방어하기 위해 나성을 축조하였다.
- ④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 ⑤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하였다.

정답> ③

'현종 2년에 (가)의 군주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러 오자 왕이 남쪽으로 피란하였는데, (가) 군대는 여전히 송악성에 주둔하고 물러가지 않았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에 현종이 여러 신하와 함께 더할 수 없는 큰 바람을 담아 대장경판을 새겨서 완성할 것을 맹세한 뒤에야 적의 군대가 스스로 물러갔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대장경판'은 초조대장경*을 가리키고 '(가)'는 곧 거란임을 알 수 있다(거란의 제2차 침입).

*초조대장경을 간행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은 거란의 제2차 침입 때문이다(초조대장경 간행 시기는 1011(현종 2)~1087(선종 4). 고려 최초의 대장경으로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였으나 몽골의 제2차 침입 때 소실되었다(1232, 고종 19).

개경을 방어하기 위해 강감찬(948~1031)의 건의로 나성을 축조한 것은 고려 현종 대(재위 1009-1031, 제8대)의 일이다(1009(현종 즉위년)~1029(현종 20)).

오답 해설>

- ① 처인성에서 김윤후(?~?)가 몽골의 적장 살리타(?~1232)를 사살한 것은 고려 고종 19년인 1232년의 일이다(처인성 전투, 처인부곡의 항전, 몽골의 제2차 침입 시).
- ② 박위(?~1398)에 의해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이 토벌된 것은 고려 창왕 원년인 1389년의 일이다. 참고로 조선 시대에는 이종무(1360~1425)가 세종 원년인 1419년에 쓰시마섬을 다시 토벌하였다.
- ④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된 것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듬해인 1593년(선조 26) 8월의 일이다. 훈련도감은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 ⑤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몽골에 대한) 장기 항전을 준비한 것은 고려 고종 19년인 1232년의 일이다(강화도 천도).

15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15. (가)에 들어갈 사진 자료로 적절한 것은? [2점]



정답> ④

'△△ 시대 문화유산 사진전'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 학교 역사 동아리에서 △△ 시대에 만들어진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사진전을 개최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 '(가)', '수월관음도*'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 시대'는 고려 시대임을 알 수 있다.

*수월관음도: 고려 시대인 14세기경 그려진 고려 불화이다. 불교 경전 화엄경에 나오는 관음보살의 거처와 형상을 그렸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국보 제18호로 고려 시대의 목조 건물이다(13세기 초로 추정). 배흘림기둥에 주심포 양식으로 축조되었다(정면 5칸, 측면 3칸, 단층 팔작지붕, 주심포계 건물). 부석사의 본전(本殿)으로 신라 문무왕 16년인 676년에 의상 대사가 왕명을 받들어 창건하였다. 건물 내부에는 국보 제45호인 소조(아미타)여래 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오답 해설>

- ①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은 국보 제119호로, 고구려의 승려들이 만들어 유포한 천불(天佛) 중의 하나이다(539, 고구려 안원왕 9). 경상남도 의령에서 출토되었다.
- ② 서산 용현리 마애 여래 삼존상은 국보 제84호로, 둥근 얼굴 윤곽에 자비로운 인상을 지녀 백제의 미소라고 불린다(서산 마애 삼존불).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중국을 오가던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교통로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충남 서산시 운산면의 가야산 절벽에 새겨져 있으며 '서산 마애 석불' 또는 '운산 마애 석불'이라고도 부른다.
- ③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은 국보 제30호로, 신라의 석탑이다(634, 선덕 여왕 3).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축조하였다.
- ⑤ 보은 법주사 팔상전은 조선 후기의 건축물이다(17세기). 국보 제55호로 건물 내부에는 석가모니의 생애를 여덟 장면으로 그린 불화가 있다. 참고로 법주사 안에는 석련지(국보 제64호)와 쌍사자 석등(국보 제5호)도 있다.

16 - 도병마사

16.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주관하였다.
- ② 주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였다.
- ③ 화폐,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였다.
- ④ 좌사정, 우사정의 이원적인 체제로 운영되었다.
- ⑤ 최우에 의해 설치되어 인사 행정을 처리하였다.

정답> ②

맨왼쪽의 말풍선에 '고려의 독자적 정치 기구인 (가)에 대해 말해 보자'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가운데 말풍선에는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참여했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고려 후기에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식목도감과 함께 고려의 독자적 정치 기구 중 하나인) 도병마사임을 알 수 있다.

도병마사에서는 주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주관한 고려의 기구는 춘추관이다. 고려 개국 초에는 사관이라 하다가 충렬왕 34년인 1308년에 이를 문한서에 병합하여 예문춘추관으로 고쳤고, 충숙왕 12년인 1325년에 예문관에서 갈라져 비로소 춘추관으로 독립하였다.
- ③ 화폐,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한 고려의 기구는 삼사(三司)이다(고려 성종 대 처음 설치).
- ④ 좌사정, 우사정의 이원적인 체제로 운영된 기구는 발해의 정당성(장관 대내상)이다.
- ⑤ 최우에 의해 설치되어 인사 행정을 처리한 고려의 기구는 정방이다(1225, 고종 12). 이후 정방은 충선왕과 충목왕, 공민왕 때 폐지되었다가 다시 설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최종적으로 고려 창왕 즉위년인 1388년에 폐지되었다.

17 - 원 간섭기의 사회 모습

17.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인후는 …… 처음 이름은 흘랄대였다. 제국공주의 겁령구였는데, 겁령구는 중국 말로 사적으로 소속된 사람이다. 제국공주를 따라 와서 중랑장에 임명되었다. 왕이 그를 장군으로 임명하고 싶어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하자, 흘랄대가 대장군 인공수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친한 사이이니 그대의 성을 빌리면 어떻겠소?”라고 하고, 드디어 성명을 바꾸어 인후라고 하였다. [인후는] 장순룡 및 차신과 더 좋은 저택을 짓기 위해 경쟁했는데, 사치스러움과 분수에 넘치는 것이 극에 달하였다.

- ① 최충이 9재 학당을 설립하였다.
- ② 빈민 구제를 위해 흑창이 설치되었다.
- ③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 ④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 해방을 도모하였다.
- ⑤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정답> ⑤

'인후(1250~1311)는 …… 처음 이름은 흘랄대였다. 제국공주의 겁령구였는데, 겁령구는 중국 말로 사적으로 소속된 사람이다. 제국공주를 따라와서 중랑장에 임명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왕이 그를 장군으로 임명하고 싶어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하자, 흘랄대가 대장군 인공수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친한 사이이니 그대의 성을 빌리면 어떻겠소라고 하고, 드디어 성명을 바꾸어 인후라고 하였다. [인후는] 장순룡 및 차신과 더 좋은 저택을 짓기 위해 경쟁했는데, 사치스러움과 분수에 넘치는 것이 극에 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여기서 제국(대장)공주(1259~1297)는 고려의 제25대 국왕인 충렬왕(재위 1274-1298, 복위 1298-1308)의 제1 왕비로, 고려 원종 15년인 1274년에 원에서 충렬왕(당시 세자)과 혼인하였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 속 시기는 원이 고려의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이른바 '원 간섭기*'에 해당한다.

*원 간섭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여러 설이 있지만 대체로 원종의 환도령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한 1270년부터 시작되어(개경 환도), 공민왕의 반원 정책이 '성공'한 1356년(공민왕 5)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 간섭기에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원의)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최충(984~1068)이 9재 학당을 세워 유학 교육에 힘쓴 것은 고려 문종 9년인 1055년의 일이다.
- ② 빈민 구제를 위해 흑창이 설치된 것은 고려 태조 원년인 918년의 일이다.
- ③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국청사를 본찰로 하는 해동 천태종을 개창한 것은 고려 숙종 2년인 1097년의 일이다.
- ④ 만적(?~1198)이 개경에서 신분 해방을 도모한 것은 고려 신종 원년인 1198년의 일이다.

18 - 삼국유사

18. 밑줄 그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편년체 형식으로 기술되었다.
- ②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서술되었다.
- ③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 ④ 왕명에 의해 고승들의 전기가 기록되었다.
- ⑤ 고구려 시조의 일대기가 서사시로 표현되었다.

정답> ②

'이곳은 경상북도 군위군에 위치한 인각사로 승려 일연이 마지막 여생을 보낸 곳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 설화 등을 수록한 역사서를 저술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여기서 밑줄 그은 '역사서'는 보각국사 일연(1206~1289)이 쓴 삼국유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285, 고려 충렬왕 11).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서술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삼국유사는 기사본말체적 역사서[야사집]이다. 고려 시대에 편년체 형식으로 기술된 대표적인 역사서로는 익재[역용] 이제현((1287~1367)의 사략을 들 수 있다(1357, 고려 공민왕 6).
- ③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역사서는 영재 유득공(1748~1807)의 발해고이다(1784, 조선 정조 8).
- ④ 왕명에 의해 고승들의 전기가 기록된 역사서는 각훈(?~?)이 고승들의 전기를 기록한 해동고승전이다(1215, 고종 2).
- ⑤ 고구려 시조의 일대기가 (장편) 서사시로 표현된 것은 동국이 상국집에 실려 있는 이규보(1168~1241)의 동명왕편이다(1193, 고려 명종 23).

19 - 조선 태종 대의 사실

19. 밑줄 그은 '임금'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명의 신종을 제사하는 대보단이 설치되었다.
- ② 백과사전류 의서인 의방유취가 편찬되었다.
- ③ 왕권 강화를 위해 6조 직계제가 실시되었다.
- ④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다.
- ⑤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가 간행되었다.

정답> ③

왼쪽 말풍선에 '얼마 전에 임금께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을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고 명하셨다더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뿐만 아니라 문하부를 없애고 의정부를 설치하면서 문하부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네'라는 말이 나와 있다. 신문고가 (처음) 설치된 때는 조선 태종 2년인 1402년이고, 문하부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킨 것은 태종 원년인 1401년의 일이다(대신 견제책).

왕권 강화를 위해 6조 직계제가 (처음) 실시된 것은 태종 14년인 1414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임진왜란 때 월군을 보내준 명 신종의 은혜, 즉 재조지은을 기리기 위해서) 명의 신종을 제사하는 대보단(大報壇)이 설치된 것은 숙종 30년인 1704년의 일이다.
- ② 백과사전류 의서인 의방유취(醫方類聚)가 편찬된 것은 세종 27년인 1445년의 일이다. 동양 최대의 의학 백과사전이다.
- ④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반포된 것은 성종 16년인 1485년의 일이다.
- ⑤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가 간행된 것은 영조 46년인 1770년의 일이다.

20 - 계유정난과 단종 복위 운동

20. 밑줄 그은 '이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이 작품은 두만강 유역의 여진을 정벌하고 6진을 개척한 김종서가 지은 시조로, 장수로서의 호방한 기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 한명회 등이 주도한 이 사건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 ① 최영에 의해 이인임 일파가 축출되었다.
- ②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되었다.
- ③ 정도전 등이 요동 정벌 계획을 추진하였다.
- ④ 성삼문 등이 상왕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되었다.
- ⑤ 이종무가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정답> ④

'이 작품은 두만강 유역의 여진을 정벌하고 6진을 개척한 김종서(1383~1453)가 지은 시조*로, 장수로서의 호방한 기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는 수양대군(1417~1468), 한명회(1415~1487) 등이 주도한 이 사건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사건'은 조선 단종 원년인 1453년에 일어난 계유정난임을 알 수 있다.

*현대어 풀이: 매서운 북풍은 나뭇가지를 흔들고, 밝은 달은 하얗게 쌓인 눈 위를 시리도록 비추고 있는데/먼 변방의 장성 위에서 한 자루 칼을 짚고 서서/긴 휘파람을 불며 큰 소리로 호통을 치니, 감히 대적하는 것이 없구나.

성삼문(1418~1456) 등이 상왕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된 것은 세조 2년인 1456년의 일이다(단종 복위 운동, 사육신).

오답 해설>

- ① 최영(1316~1388)에 의해 이인임 일파가 축출된 것은 고려 우왕 14년인 1388년의 일이다.
- ② 최무선(1325~1395)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된 것은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의 일이다.
- ③ 정도전(1342~1398) 등이 요동 정벌 계획을 추진한 것은 조선 태조 5년인 1396년에서 정도전이 제1차 왕자의 난으로 피살되는 1398년(태조 7)까지이다. 정도전이 요동 정벌을 주장하는 계기가 된 것은 원의 쇠퇴와 명의 등장으로 인한 요동 지역의 정치적 공백 때문이었다. 그리고 고토(古土) 회복에 대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던 정도전에게는 '요동 정벌'이 아니라 일종의 '요동 수복 운동'이었다.
- ⑤ 이종무(1360~1425)가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한 것은 세종 원년인 1419년의 일이다. 참고로 고려 시대에 박위(?~1398)에 의해 쓰시마섬이 토벌된 적이 있다.

21 - 갑자사화

21.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유자광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구절마다 풀이해서 아뢰기를, "감히 이와 같은 부도한 말을 했으니, 청컨대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시옵소서. 이 문집 및 판본을 다 불태워버리고 간행한 사람까지 아울러 죄를 다스리시기를 청하옵니다."라고 하였다.

(나) 박원종 등이 궐문 밖에 진군하여 대비(大妃)에게 아뢰기를, "지금 임금이 도리를 잃어 정치가 혼란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종사는 위태롭습니다. 진성대군은 대소 신민의 촉망을 받은 지 이미 오래이므로, 이제 추대하고자 하오니 감히 대비의 분부를 여쭙니다."라고 하였다.

- ①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 ②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었다.
- ③ 이인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 ④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을 빌미로 김광필 등이 처형되었다.
- ⑤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하였다.

정답> ④

(가)에 '유자광이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구절마다 풀이해서 아뢰기를, 감히 이와 같은 부도한 말을 했으니, 청컨대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시옵소서'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문집 및 판본을 다 불태워버리고 간행한 사람까지 아울러 죄를 다스리시기를 청하옵니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유자광'과 '김종직', '조의제문' 등을 통해 주어진 자료는 곧 무오사화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1498, 조선 연산군 4).

(나)에는 '박원종 등이 궐문 밖에 진군하여 대비(大妃)에게 아뢰기를, 지금 임금이 도리를 잃어 정치가 혼란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종사는 위태롭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진성대군은 대소 신민의 촉망을 받은 지 이미 오래이므로, 이제 추대하고자 하오니 감히 대비의 분부를 여쭙니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박원종', '진성대군' 등을 통해 주어진 자료는 곧 중종반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1506, 연산군 12). 진성대군은 연산군의 이복동생으로 곧 조선의 제11대 국왕인 중종(재위 1506~1544)이다. 또 대비는 성종의 계비이자 진성대군[중종]의 어머니인 정헌 왕후(1462~153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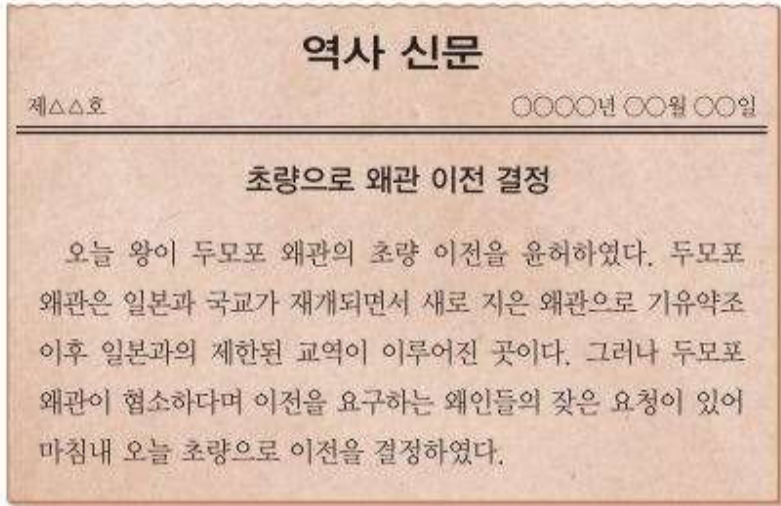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을 빌미로 김광필(1454~1504) 등(의 사림)이 처형된 사건은 갑자사화이다(1504, 연산군 10).

오답 해설>

- ①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사건은 인조반정이다(1623, 광해군 15). 이귀, 김유 등 서인 일파가 정변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광해군의 조카인 능양군 이종(1595~1649)을 왕위(인조, 재위 1623~1649, 제16대)에 앉혔다.
- ②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된 사건은 기묘사화이다(1519, 중종 14).
- ③ 이인좌(1695~1728)를 중심으로 한 일부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킨 사건은 이인좌의 난이다(1728, 영조 4).
- ⑤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한 사건은 기사환국이다(1689, 숙종 15). 우암 송시열(1607~1689)을 비롯한 서인이 축출당하고 남인이 집권하였다.

22 -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22.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 ②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수출되었다.
- ③ 담배, 고추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 ④ 당항성, 영암이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 ⑤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정답> ③

'초량으로 왜관 이전 결정'이라는 제목 아래 '오늘 왕이 두모포 왜관의 초량 이전을 윤허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두모포 왜관*은 일본과 국교가 재개되면서 새로 지은 왜관으로 기유약조 이후 일본과의 제한된 교역이 이루어진 곳이다. 그러나 두모포 왜관이 협소하다며 이전을 요구하는 왜인들의 잦은 요청이 있어 마침내 오늘 초량으로 이전을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초량 왜관이 설치된 것은 조선 숙종 4년인 1678년의 일이다

*두모포(豆毛浦) 왜관: 조선 선조 40년인 1607년 부산 두모포에 설치되었다. 부산 두모포는 현 부산 동구청이 있는 자리이다[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1(수정동)].

담배, 고추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된 것은 고려 성종 15년인 996년의 일이다(최초의 철전).
- ②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수출한 나라는 발해이다(솔빈부의 특산물).
- ④ 당항성, (전남) 영암*이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한 것은 (통일) 신라 시대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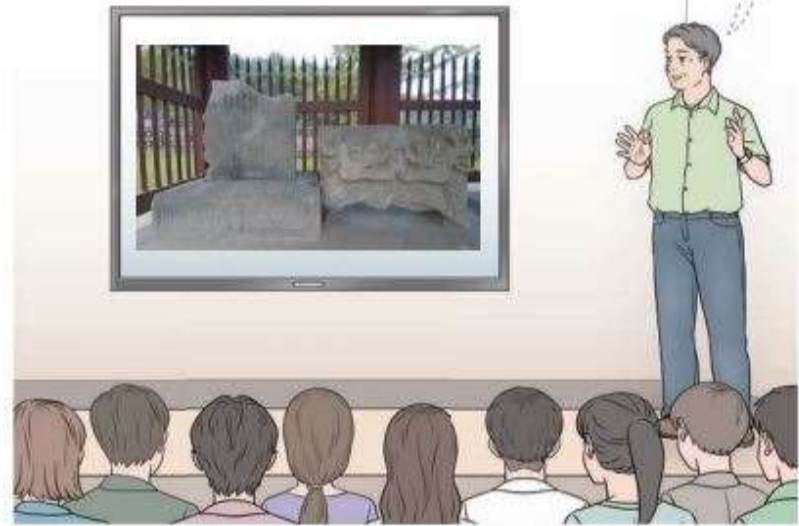
*(통일) 신라의 최대 무역항은 울산항이었고, 당항성은 중국의 산둥반도와 연결된 일종의 무역 북로, (전남) 영암은 중국의 양쯔강 지역과 연결된 무역 남로의 무역항이었다. 9세기 전반에는 청해진도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 ⑤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 경시서가 설치된 것은 고려 목종 대(재위 997-1009, 제7대)로 추정된다(경시서 자체는 그 이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 그러다 고려 문종 대(재위 1046-1083, 제11대)에 이르러 경시서의 직제가 확대되었다. 이후 경시서는 조선 초에도 계속 존속되다가 세조 12년(1466)에 관제를 개혁할 때 평시서(平市署)로 개칭되었다.

23 - 청에 대한 조선의 정책

23. (가) 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비석은 (가)의 요청으로 나선 정벌에 참여했던 총병관 신유를 기리기 위한 신도비입니다. 이 비에는 그의 조총 부대가 흑룡강 일대에서 러시아군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①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하였다.
- ②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 무역을 허용하였다.
- ③ 조약 체결에 대한 답례로 보빙사를 보냈다.
- ④ 공녀를 보내기 위해 결혼도감을 설치하였다.
- ⑤ 포로 송환을 위해 회답 겸 쇄환사를 파견하였다.

정답> ①

'이 비석은 (가)의 요청으로 나선 정벌에 참여했던 총병관 신유(신류)를 기리기 위한 신도비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비에는 그의 조총 부대가 흑룡강 일대에서 러시아군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신류(1619~1680)가 (명의 요청에 의한) 나선 정벌에 참여한 것은 조선 효종 9년인 1658년의 일이다(2차 정벌, 1차 정벌은 효종 5년인 1654년의 일로 변급이 통솔). 이를 통해 자료 속 주어진 '(가) 국가'는 '청(淸)'이다.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한 것은 조선 효종 대(재위 1649-1659, 제17대)의 일로, 그 대상은 청(나라)이다. 어영청이 처음 설치된 것은 인조 2년인 1624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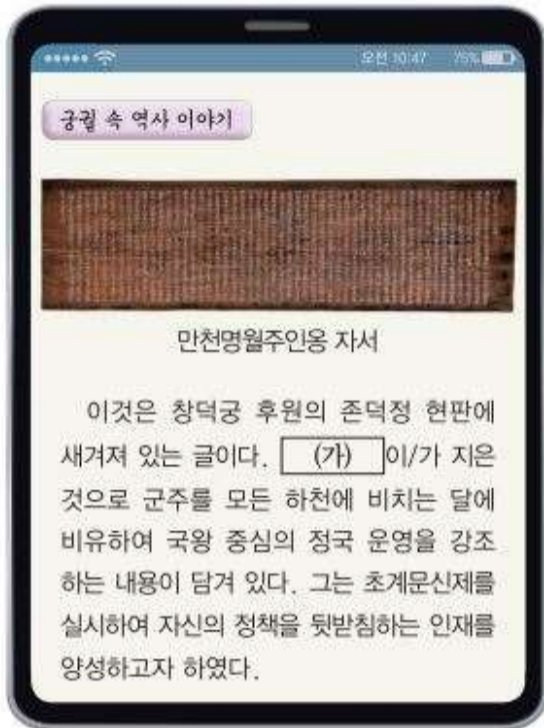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②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한 것은 조선 태종 7년인 1407년의 일이다. 즉 동평관은 일본 사신이 머물던 숙소로, 왜관(倭館)이라고도 하였다.
- ③ 조약 체결에 대한 답례로 보빙사를 보낸 대상 국가는 미국이다(1883.7~1884.5). 전권대신 민영익(1860~1914)과 부대신 흥영식(1855~1884), 종사관 서광범(1859~1897) 등으로 구성된 보빙사는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로 파견되었으며, 미국 뉴욕에서 체스터 앨런 아서(재임 1881-1885, 제21대) 대통령을 접견하였다. 이어 보스턴 만국 박람회를 참관하고, 병원, 전신 회사, 우체국 등을 시찰하였다.
- ④ 공녀를 보내기 위해 결혼도감을 설치한 것은 고려 원종 15년인 1274년의 일로, 그 대상 국가는 원(나라)이다(원 간섭기).
- ⑤ 포로 송환을 위해 (유정을) 회답 겸 쇄환사(回答兼刷還使)로 일본에 파견한 것은 조선 선조 37년인 1604년의 일이다. 사명대사 유정(1544~1610)은 일본에 건너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1542~1616)를 만나 강화를 맺고 이듬해에 임진왜란 때 잡혀간 조선인 3,000여 명을 인솔하여 귀국하였다. 참고로 이후 단절된 국교를 회복하고자 1607년(선조 40) 정사(正使) 여우길 일행도 회답 겸 쇄환사(回答兼刷還使)로 일본에 파견된 적이 있다(이후에도 통신사로 명칭이 바뀌기 전에 두 차례 더 파견).

24 - 조선 정조가 추진한 정책

24. (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친위 부대로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 ②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 ③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을 만들었다.
- ④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 ⑤ 직전법을 제정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정답> ①

'만천명월주인옹 자서'가 사진과 함께 제시되어 있고, '이것은 창덕궁 후원의 존덕정 현판에 새겨져 있는 글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이/가 지은 것으로 군주를 모든 하천에 비치는 달에 비유하여 국왕 중심의 정국 운영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여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조선의 제22대 국왕인 정조(재위 1776-1800)임을 알 수 있다.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여 젊은 문신들을 재교육한 것은 정조 5년인 1781년의 일이다.

정조는 친위 부대로 장용영을 설치하였다(1793, 정조 17).

오답 해설>

- ② 경기도에 한하여 대동법을 실시한 것은 조선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의 일이다.
- ③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내편)을 만든 것은 조선 세종 26년인 1444년의 일이다. 이순지, 김담 등이 편찬에 참여하였다.
- ④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회통을 편찬한 것은 조선 고종 2년인 1865년의 일이다.
- ⑤ 직전법을 제정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한 것은 조선 세조 12년인 1466년의 일이다.

25 - 조선 후기의 문화

25. 밑줄 그은 '이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원각사지 십층 석탑이 건립되었다.
- ② 인왕제색도 등 진경 산수화가 그려졌다.
- ③ 주자소가 설치되어 계미자가 주조되었다.
- ④ 표면에 백토를 바른 분청사기가 유행하였다.
- ⑤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되었다.

정답> ②

맨왼쪽 말풍선에 '춘향전 등 한글 소설이 유행했던 이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가운데 말풍선에는 '소설책을 빌려주는 세책가*가 성행하였어요'라는 대답이,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저잣거리에서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가 인기를 끌었어요'라는 대답이 차례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시기'는 조선 후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세책가(貰冊家): 영리를 목적으로 책을 빌려주는 사람이다. 요컨대 조선 후기에 국문 소설이 유행하자 이에 편승하여 주로 필사본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원하는 고객들(주로 부녀자들)에게 대여하는 것을 업으로 했던 일종의 '소설 유통업자'들을 일컫는다. 인왕제색도 등 진경 산수화가 그려진 시기는 조선 후기이다. 인왕제색도는 '금강전도'와 함께 겸재 정선(1676~1756)의 대표작으로 꼽힌다(1751년작, 황혼에 접어든 일흔 여섯의 나이에 완성).

오답 해설>

- ① (서울) 원각사지 십층 석탑이 건립된 것은 조선 세조 13년인 1467년의 일이다.
- ③ 주자소가 설치되어 계미자가 주조된 것은 태종 3년인 1403년의 일이다.
- ④ 표면에 백토를 바른 분청사기가 유행한 것은 조선 전기이다.
- ⑤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된 것은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의 일이다.

26 - 비변사

26.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역사 용어 해설

(가)

1. 개요

중종 때 삼포왜란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을묘왜변을 겪으면서 상설 기구화되었고, 양 난을 거치며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발전하였다.

2. 관련 사료

중외(中外)의 군국 기무를 모두 관장한다. …… 도제조는 현임과 전임 의정(議政)이 겸하고, 제조는 정원에 제한이 없으며 임금에게 보고하여 임명한다. 이·호·예·병·형조 판서, 양국 대장, 양도 유수, 대제학은 당연히 겸직한다.

- 『속대전』 -

- ① 업무 일지인 내각일력을 작성하였다.
- ②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 ③ 소속 관원을 은대 학사라고도 칭하였다.
- ④ 흥선 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
- ⑤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중죄인을 다스렸다.

정답> ④

개요로 '중종 때 삼포왜란을 계기로 설치되었다(1510, 중종 5). 을묘왜변을 겪으면서 상설 기구화되었고(1555, 명종 10), 양 난을 거치며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발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관련 사료로 '중외(中外)의 군국 기무를 모두 관장한다. …… 도제조는 현임과 전임 의정(議政)이 겸하고, 제조는 정원에 제한이 없으며 임금에게 보고하여 임명한다. 이·호·예·병·형조 판서, 양국 대장, 양도 유수, 대제학은 당연히 겸직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비변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비변사는 흥선 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1865, 고종 2, 의정부와 삼군부 부활).

*흥선 대원군 집권 시기: 1863년 12월에서 1873년 11월까지

오답 해설>

- ① 업무 일지인 내각일력을 작성한 기구는 규장각이다(1776, 정조 즉위년). 규장각은 정조의 명에 의해 설치된 왕실 도서관이자 학술 연구 및 정책 자문 기관으로, 내각일력(內閣日曆)은 규장각에서 있었던 일과 업무를 기록한 책이다. 어제(御製)의 봉안, 검서 등의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일반 정사나 왕의 동정, 소속 관원의 근무 상황까지 수록되어 있다.
- ②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3사로 불린 기구는 흥문관이다(1478, 성종 9). 대제학이 수장이며 왕에게 경서와 사서를 감독하는 경연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 ③ 소속 관원을 은대 학사라고도 칭한 기구는 왕명의 출납을 맡은 비서 기관인 승정원이다. 승정원을 은대(銀臺), 후원(喉院)이라고도 불렀다.
- ⑤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중죄인을 다스린 기구는 의금부이다.

27 - 영재 유득공

27.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은/는 널리 배워 시를 잘 짓고 전고(典故)에도 밝았다. …… 발해고를 지어서 인물과 군현, 왕실 계보의 연혁 등을 상세하게 잘 엮어서 두루 모아놓으니 기뻐할 만하다. 그런데 그의 말에 왕씨가 고구려의 옛 강역을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탄식한 부분이 있다. 왕씨가 옛 강역을 회복하지 못하니 계림과 낙랑의 옛터가 마침내 어두워져 스스로 천하와 단절되었다는 것이다.

- ①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활동하였다.
- ② 양명학을 연구해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 ③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 ④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 ⑤ 체질에 따라 치료를 달리하는 사상 의학을 확립하였다.

정답> ①

'(가)은/는 널리 배워 시를 잘 짓고 전고(典故)*에도 밝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발해고를 지어서 인물과 군현, 왕실 계보의 연혁 등을 상세하게 잘 엮어서 두루 모아놓으니 기뻐할 만하다. 그런데 그의 말에 왕씨가 고구려의 옛 강역을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탄식한 부분이 있다. 왕씨가 옛 강역을 회복하지 못하니 계림과 낙랑의 옛터가 마침내 어두워져 스스로 천하와 단절되었다는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발해고를 지었다는 부분에서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영재 유득공(1748~1807)임을 알 수 있다[발해고, 1784(조선 정조 8)]. 발해고에서 유득공은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전고(典故): 전례(典例)(전거가 되는 선례)와 고사(故事)(유례가 있는 옛날의 일)를 아울러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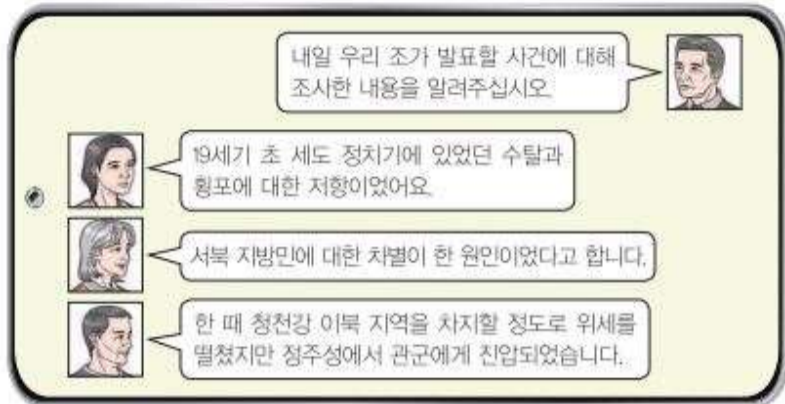
유득공은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활동하였다. 참고로 서얼 출신의 학자들이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된 것은 정조 3년인 1779년의 일이다. 이때 정조는 규장각 외각에 검서관(檢書官)이라는 [정직(正職)이 아닌] 잡직(雜職)을 두고 초대 검서관으로 서얼 출신인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를 임명하였다[이른바 '사검서관(四檢書官)']. 이들의 기본 임무는 규장각 각신(閣臣)을 보좌하고 문서를 필사하는 것이었는데, 정조는 문신들이 매일 강(講)을 할 때 왕과 신하들 사이에 논의되는 내용을 검서관으로 하여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관하게 하는 등 이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

오답 해설>

- ② 양명학을 연구해 강화학파를 형성한 인물은 하극 정제두(1649~1736)이다.
- ③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인물은 담헌 홍대용(1731~1783)이다(1766, 영조 42).
- ④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처음으로 밝혀낸 인물은 추사 김정희(1786~1856)이다[금석과안록, 1852철종 3].
- ⑤ 체질에 따라 치료를 달리하는 사상 의학을 확립한 인물은 동무 이제마(1837~1900)이다[동의수세보원, 1894(고종 31)].

28 - 홍경래의 난

28.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홍경래, 우군칙 등이 주도하였다.
- ②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③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④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내걸었다.
- ⑤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①

'내일 우리 조가 발표할 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라는 요청이 나와 있다. 이어 '19세기 초 세도 정치기에 있었던 수탈과 횡포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서북 지방민에 대한 차별이 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한때 청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할 정도로 위세를 떨쳤지만 정주성에서 관군에게 진압되었습니다'는 내용이 차례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사건은 조선 순조 11년인 1811년 평안도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11.12~1812.4).

홍경래의 난은 홍경래(1771~1812), 우군칙(1776~1812)* 등이 주도하였다.

*우군칙: 풍수복설가(風水卜說家)로, 홍경래 난의 모사(謀士), 즉 책략가이다.

오답 해설>

- ②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를 가져온 사건은 임오군란이다(1882.6). 참고로 갑신정변 때는 이미 주둔해 있던 청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 ③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이 된 사건도 임오군란이다. 1882년(고종 19) 8월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되었다.
- ④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내건 사건은 동학 농민 운동이다(1894, 고종 31).
- ⑤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는 계기가 된 사건은 진주 농민 봉기이다(1862, 철종 13).

[29번 해설]

하는 바 성호 이익(1681~1763)은 성호사설에서 앞 시대의 홍길동, 뒷시대의 장길산과 함께 임꺽정을 조선의 3대 도적으로 꼽았다.

ㄹ.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사발통문을 작성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이상에서 옳은 설명을 한 것은, 'ㄴ과 ㄹ'이다.

29 - 한국사의 주요 농민 봉기

29. (가)~(라)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나라 안의 모든 주군(州郡)에서 공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창고가 비고 재정이 궁핍해졌다. 왕이 관리를 보내 독촉하니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 애노 등이 사벌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

(나) 남쪽에서 적(賊)들이 봉기하였다. 가장 심한 자들은 운문을 거점으로 한 김사미와 초전을 거점으로 한 효심이였다. 이들은 유랑민을 불러 모아 주현(州縣)을 습격하여 노략질하였다.

(다) 임술년 2월 19일, 진주 백성 수만 명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진주 읍내에 모여 서리들의 가옥 수십 호를 불사르고 부수니,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라) 군수 조병갑은 탐학이 심하여 군민들이 그 주구에 시달려왔다. 그러던 중 조병갑이 다시 만석보 보수를 빙자하여 백성을 강제 노역시키고 불법적인 징세를 자행하였기에 군민들이 더욱 한을 품게 되었다. …… 전봉준은 백성을 이끌고 일어나 관아를 습격하고 관청에서 쌓은 보를 허물어 버렸다.

— <보 기> —

- ㄱ. (가) -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 ㄴ. (나) - 무신 집권기 지배층의 수탈에 대한 저항이었다.
- ㄷ. (다) - 윤원형 일파가 정국을 주도한 시기에 발생하였다.
- ㄹ. (라) -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사발통문을 작성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가)에 '나라 안의 모든 주군(州郡)에서 공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창고가 비고 재정이 궁핍해졌다. 왕이 관리를 보내 독촉하니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 애노 등이 사벌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신라 말기에 사벌주(지금의 경북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889, 진성 여왕 3).

(나)에는 '남쪽에서 적(賊)들이 봉기하였다. 가장 심한 자들은 운문을 거점으로 한 김사미와 초전을 거점으로 한 효심이였다. 이들은 유랑민을 모아 주현(州縣)을 습격하여 노략질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경상도의 울산과 청도를 중심으로 김사미와 효심의 난이 일어난 것은 고려 명종 23년인 1193년의 일이다.

(다)에는 '임술년 2월 19일, 진주 백성 수만 명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진주 읍내에 모여 서리들의 가옥 수십 호를 불사르고 부수니,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진주에서 농민 봉기가 발생한 것은 철종 13년인 1862년의 일이다(진주 농민 봉기, 1862.2).

(라)에는 '군수 조병갑은 탐학이 심하여 군민들이 그 주구에 시달려왔다. 그러던 중 조병갑이 다시 만석보 보수를 빙자하여 백성을 강제 노역시키고 불법적인 징세를 자행하였기에 군민들이 더욱 한을 품게 되었다. …… 전봉준은 백성을 이끌고 일어나 관아를 습격하고 관청에서 쌓은 보를 허물어 버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전북 고부(지금의 정읍)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난 것은 고종 31년인 1894년의 일이다(고부 농민 봉기, 18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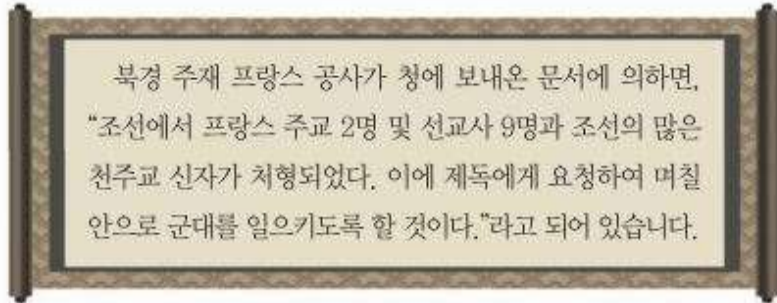
ㄱ.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된 사건은 진주 농민 봉기이다(가)가 아니라 (다)가 해당.

ㄴ. (김사미와 효심의 난은) 무신 집권기 지배층의 수탈에 대한 저항이었다. 옳은 설명이다.

ㄷ. 윤원형(1503~1565) 일파(소운 세력)가 정국을 주도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농민 봉기)으로는 (대표적으로) 임꺽정의 난을 들 수 있다. 임꺽정(?~1562)이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에서 '의적'으로 활약한 것은 조선 명종 대(재위 1545~1567)이다. 임꺽정은 임거정(林巨正) 또는 임거질정(林居叱正)이라고도

30 - 병인박해

30.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1863	1868	1871	1875	1882	1886
(가)	(나)	(다)	(라)	(마)	
고종 즉위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 양요	운요호 사건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조프 수호 통상 조약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①

'북경 주재 프랑스 공사가 청에 보내온 문서에 의하면, 조선에서 프랑스 주교 2명 및 선교사 9명과 조선의 많은 천주교 신자가 처형되었다. 이에 제독에게 요청하여 며칠 안으로 군대를 일으키도록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프랑스 주교 2명*과 선교사 9명, 많은 천주교 신자가 처형된 것은 고종 3년인 1866년에 일어난 병인박해 때의 일이다.

*프랑스 주교 2명: 베르뇌(Berneux, 張敬一, 1814~1866) 주교와 다블뤼(Daveluy, 安敦伊, 1818~1866) 주교를 가리킨다. 베르뇌 주교는 서울의 새남터에서 처형되었고, 다블뤼 주교는 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리에서 처형되었다.

주어진 연표에서는 고종이 즉위한 1863년과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난 1868년 사이인 '(가) 시기'에 해당한다.

31 -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31.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최혜국 대우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 ②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가 되었다.
- ④ 일본 경비병의 공사관 주둔을 명시하였다.
- ⑤ 부산 외 2곳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 ⑤

이칭이 '조일 수호 조규'이고, 체결 연도가 1876년으로 되어 있다. 협상 대표는 '신헌, 구로다 기요타카'이며 주요 조항으로 제1관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가, 제7관으로 '조선국 연해를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한다'가 차례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조약은 고종 13년인 1876년 2월 27일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강화도 조약 체결 결과 부산 외 2곳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제4관의 내용). 부산이 1876년에, 원산이 1880년에, 인천이 1883년에 개항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최혜국 대우를 최초로 규정한 조약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다(1882.5, 제2조).
- ②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된 조약은 제2차 한일 협약, 즉 을사늑약이다(1905.11). 이에 따라 통감부는 1906년 2월에 설치되었다.
- ③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가 된 조약은 조불 수호 통상 조약이다[1886.6, 제9조].
- ④ 일본 경비병의 공사관 주둔을 명시한 조약은 (임오군란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은) 제물포 조약이다(1882.8).

32 - 갑신정변 이후의 사실

32.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17일에 흥 참판이 우정총국에서 개국 연회를 열었다. 그동안에 [담장 밖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민 참판은 양해를 구한 뒤 화재 진압을 돕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바깥에는 연회에 참석한 일본 공사를 호위하기 위해 온 일본 병사들이 두 줄로 늘어서 있었고, 그는 그들을 지나쳤다. 민 참판은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고, 몸 여러 군데에 자상을 입었다.
- 『조지 클레이튼 포크의 일기』 -

- 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폐지되었다.
- ②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 ③ 이항로와 기정진이 척화주전론을 주장하였다.
- ④ 왕비가 궁궐을 빠져 나와 장호원으로 피신하였다.
- ⑤ 개화당 정부가 수립되고 개혁 정강이 발표되었다.

정답> ⑤

'17일에 흥 참판이 우정총국에서 개국 연회를 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동안에 [담장 밖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민 참판*은 양해를 구한 뒤 화재 진압을 돕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바깥에는 연회에 참석한 일본 공사를 호위하기 위해 온 일본 병사들이 두 줄로 늘어서 있었고, 그는 그들을 지나쳤다. 민 참판은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고, 몸 여러 군데에 자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상황은 고종 21년인 1884년 12월 4일에 발생한 갑신정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명성 황후의 친정 조카인 민영익(1860~1914)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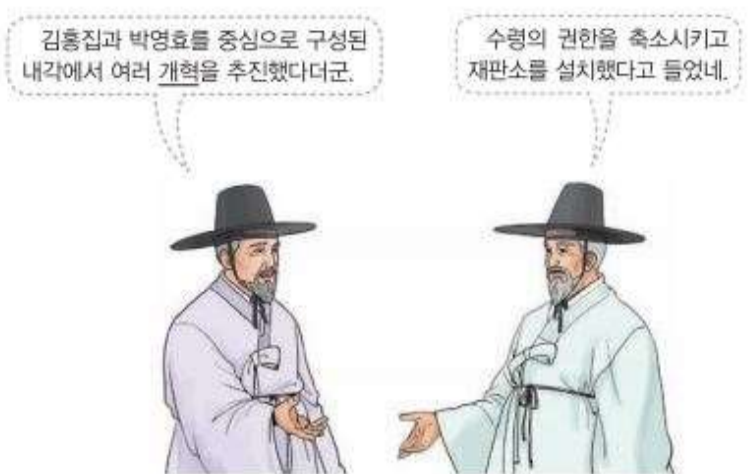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거사를 일으킨 김옥균(1851~1894), 홍영식(흥 참판, 1855~1884), 박영효(1861~1939), 서광범(1859~1897), 서재필(1864~1951), 변수(1861~1891) 등의 급진 개화파들에 의해 개화당 정부가 수립되고 (14개조의) 개혁 정강이 발표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폐지된 것은 임오군란 때의 일이다 (1882.6, 고종 19).
- ② 김기수(1823~1894)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것은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인 1876년(고종 13) 4월의 일이다(~윤6월).
- ③ 이항로(1792~1868)와 기정진(1798~1879)이 척화주전론을 주장한 것은 병인양요 때의 일이다(1866.10, 고종 3).
- ④ 왕비[명성 황후]가 궁궐을 빠져 나와 장호원으로 피신한 것은 임오군란 때의 일이다.

33 - 제2차 갑오개혁

33.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 ② 기기창을 설립하였다.
- ③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였다.
- ④ 태양력을 공식 채택하였다.
- ⑤ 한성 사범 학교 관제를 반포하였다.

정답> ⑤

왼쪽 말풍선에 '김홍집과 박영효를 중심으로 구성된 내각에서 여러 개혁을 추진했다더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수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재판소를 설치했다고 들었네'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개혁은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이 추진한 제2차 갑오개혁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1894.12-1895.8).

한성 사범 학교 관제(칙령 제79호)를 반포한 것은 제2차 갑오개혁 때인 1895년 4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원수부가 설치된 것은 광무개혁 때인 광무 3년(고종 36년)인 1899년 6월의 일이다.
- ② 기기창이 설립된 것은 고종 20년인 1883년 3월의 일이다.
- ③ 공사 노비법을 혁파한 것은 제1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 (1894.7~12).
- ④ 태양력을 공식 채택한 것은 을미개혁 때의 일이다 (1895.8~1896.2).

34 - 홍암 나철

34. 밑줄 그은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5적 처단을 위해 자신회를 조직하였다.
- ②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였다.
- ③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 ④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저격하였다.
- ⑤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정답> ①

'저는 지금 전라남도 보성군에 와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오기호 등과 함께 대종교를 창시하고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그를 기리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에는 그의 호를 딴 홍암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그'는 홍암 나철(1863~1916)임을 알 수 있다. 대종교는 1909년 1월에 창시되었으며, 처음에는 명칭이 단군교였다가 이듬해인 1910년 7월 대종교로 개명하였다(민족 고유의 종교).

나철은 5적 처단을 위해 자신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1907.2). 하지만 거사 직전에 탄로가 나서 나철은 신안군의 지도(智島)로 유배되었다.

오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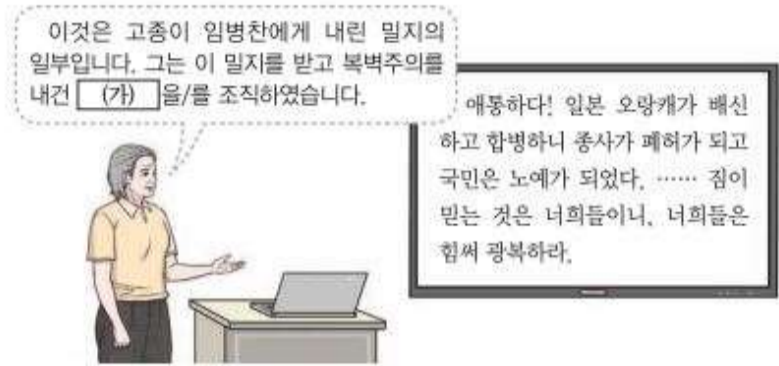
- ②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한 인물은 이재명 의사(1886~1910)이다(1909.12).
- ③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인물은 안중근 의사(1879~1910)이다(1909.10)
- ④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저격*한 인물은 조명하 의사(1905~1928)이다(1928.5). 여기서 일본 육군 대장은 육군 특별검열사 구니노미야 구니히코로 일본 왕 히로히토(裕仁)의 장인이며 군사 참의관이였다. 이때의 부상으로 구니노미야는 이듬해 1월에 죽었다.

*독약을 묻힌 단검으로 구니노미야를 향해 던졌다.

- ⑤ 동양 척식 주식회사와 조선 식산 은행에 폭탄을 투척한 인물은 의열단원 나석주 의사(1892~1926)이다(1926.12).

35 - (대한)독립 의군부

35.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일본 도쿄에서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 ② 일제가 제정한 치안 유지법으로 탄압받았다.
- ③ 서간도에 신흥 강습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 ④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 ⑤ 조선 총독에게 제출하기 위해 국권 반환 요구서를 작성하였다.

정답> ⑤

왼쪽 말풍선에 '이것은 고종이 임병찬에게 내린 밀지의 일부입니다. 그는 이 밀지를 받고 복벽주의를 내건 (가)을/를 조직하였습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왼쪽에는 밀지의 일부로 '애통하다! 일본 오랑캐가 배신하고 합병하니 종사가 폐허가 되고 국민은 노예가 되었다. 짐이 믿는 것은 너희들이니, 너희들은 힘써 광복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1912년 9월에 조직된 (대한)독립 의군부임을 알 수 있다(~1913.5).

독립 의군부는 (일제 총리 대신과) 조선 총독에게 제출하기 위해 국권 반환 요구서를 작성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일본 도쿄에서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한 단체는 재일본 동경 조선 청년 독립단이다. 동 단체는 최팔용, 서춘, 백관수 등 재일 도쿄 유학생들이 조직하였다(1918.12).
- ② 일제가 치안 유지법을 제정(· 공포)한 것은 1925년 4월의 일이다(시행은 같은 해 5월).
- ③ 서간도에 신흥 강습소를 세운 단체는 경학사이다(1911.4).
- ④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1919.11).

36 - 간도 참변의 배경

36.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경신년 시월에 일본 토벌대들이 전 만주를 휩쓸어 애국지사들은 물론이고 농민들도 무조건 잡아다 학살하였다. …… 독립군의 성과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이 대학살을 감행한 것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경신참변이다. 그래서 애국지사들은 가족들을 두고 단신으로 길림성 오상현, 흑룡강성 영안현 등으로 흩어졌다.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 ① 조선 의용대가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 ② 대한 독립군 등이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 ③ 조선 혁명군이 영릉가에서 일본군에 승리를 거두었다.
- ④ 한국 독립군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 ⑤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직할 부대로 참의부를 결성하였다.

정답> ②

'경신년 시월에 일본 토벌대들이 전 만주를 휩쓸어 애국지사들은 물론이고 농민들도 무조건 잡아다 학살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독립군의 성과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이 대학살을 감행한 것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경신참변이다. 그래서 애국지사들은 가족들을 두고 단신으로 길림성 오상현, 흑룡강성 영안현 등으로 흩어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여기서 경신참변이란 1920년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서의 패배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가 간도에서 저지른 만행, 즉 간도 참변을 가리킨다(1920.10~1921.4). 참고로 출처인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는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1858~1932)의 손부 허은여사(1907~1997)의 회고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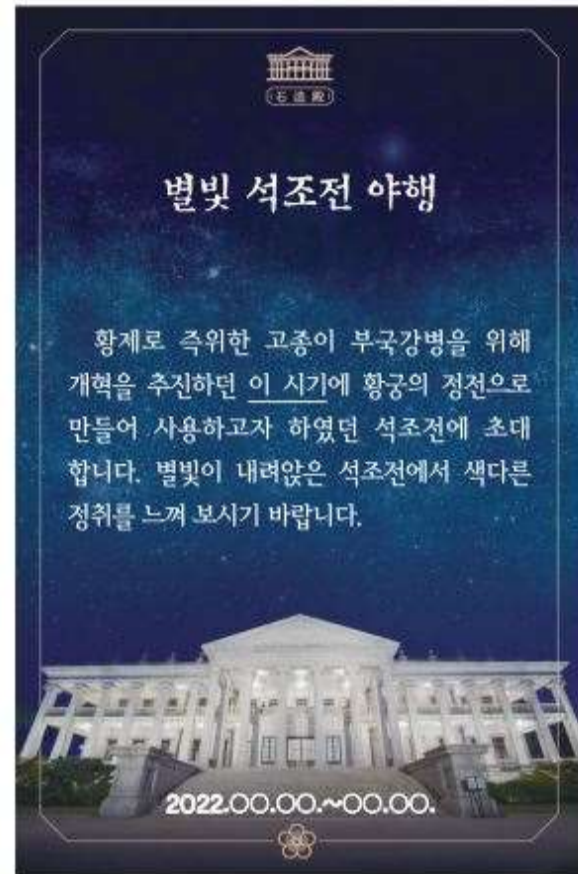
대한 독립군 등의 독립군 연합 부대가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것은 1920년 6월의 일이다(1920.6.7).

오답 해설>

- ① 조선 의용대가 (중국 팔로군과 함께)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한 것은 1941년 12월의 일이다. 참고로 호가장은 중국 하북성 태항산 줄기에 닿는 작은 마을이다.
- ③ 조선 혁명군(양세봉 총사령)이 영릉가에서 일본군에 승리를 거둔 것은 1932년 3월에서 7월까지의 일이다.
- ④ 한국 독립군(지청천 총사령)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것은 1933년 7월의 일이다.
- ⑤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무장 투쟁을 위해 남만주 지역에 임시 정부) 직할 부대로 참의부를 결성한 것은 1924년 6월의 일이다.

37 - 광무개혁 시기의 모습

37. 밑줄 그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영선사 일행으로 청에 가는 생도
- ② 육영 공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
- ③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영국 해군
- ④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하는 관리
- ⑤ 보은 집회에서 교조 신원을 주장하는 동학교도

정답> ④

'별빛 석조전 야행'이라는 제목 아래 '황제로 즉위한 고종이 부국강병을 위해 개혁을 추진하던 이 시기에 황궁의 정전으로 만들어 사용하고자 하였던 석조전에 초대합니다. 별빛이 내려앉은 석조전에서 색다른 정취를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여기서 석조전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덕수궁 석조전(사적 제124호)을 가리키는 바 주어진 자료의 밑줄 그은 '이 시기'는 곧 대한 제국 시기 중 광무개혁을 추진하던 때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97~1904).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한 것은 광무개혁 때의 일이다(1899~1904).

오답 해설>

- ① 영선사를 청에 파견한 것은 고종 18년인 1881년의 일이다(1881.9~1882.11). 이듬해인 1882년 6월에 발발한 임오군란의 여파로 조기 귀국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기기창(근대적 무기 제조 공장)이 설립되었다(1883.3).
- ② 육영 공원이 설립된 것은 고종 23년인 1886년 9월의 일이다(~1894.1).
- ③ 영국 해군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것은 고종 22년인 1885년 4월의 일이다(~1887.2).
- ⑤ 동학교도들이 보은 집회에서 교조 신원을 주장한 것은 고종 30년인 1893년 3월의 일이다.

38 - 포츠머스 조약 이후의 사실(을사의병)

38.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오늘 신문에 강화(講和) 조약 전문이 공개되었다.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에서 갖고 있는 막대한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이익을 인정하고, 일본이 조선의 내정을 지도·보호 및 감리(監理)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어떠한 조치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 러시아는 전쟁으로 교훈을 얻었다. 일본은 전쟁으로 영예를 얻었다. 조선은 전쟁으로 최악의 것을 얻었다.
- 「윤치호 일기」 -

- ①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부임하였다.
- ②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 ③ 베델과 양기탁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 ④ 관민 공동회가 개최되어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 ⑤ 민중식이 이끄는 의병 부대가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정답> ⑤

'오늘 신문에 강화(講和) 조약 전문이 공개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에서 갖고 있는 막대한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이익을 인정하고, 일본이 조선의 내정을 지도·보호 및 감리(監理)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어떠한 조치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 러시아는 전쟁으로 교훈을 얻었다. 일본은 전쟁으로 영예를 얻었다. 조선은 전쟁으로 최악의 것을 얻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강화 조약이란 러일 전쟁 결과 러시아가 일제에 대한 제국에서의 독점적 우위권을 인정한 포츠머스 조약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05.9.5).

민중식(1861~1917)이 이끄는 의병 부대가 홍주성을 점령한 것은 1906년 5월의 일이다(1906.5.19~31)(을사의병).

오답 해설>

- ① 메가타(1853~1926)가 재정 고문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된 조약은 제1차 한일 협약이다(1904.8).
- ②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것은 1896년 2월의 일이다(아관 파천).
- ③ 베델(1872~1909)과 양기탁(1871~1938)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것은 1904년 7월의 일이다.
- ④ 관민 공동회가 개최되어 헌의 6조를 결의한 것은 1898년 10월의 일이다.

39 - 천도교

39.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힘썼다.
- ② 중광단을 조직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 ③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 ④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추진하였다.
- ⑤ 일제의 통제에 맞서 사찰령 폐지 운동을 주도하였다.

정답> ①

'이곳은 동학에서 시작된 종교인 (가) 소속의 방정환, 김기전 등이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1922년 어린이의 날을 선포한 장소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들은 어린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출발하여 거리 행진을 하며 선전문을 배포한 뒤 어린이날 제정 축하 기념회를 열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천도교임을 알 수 있다.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은 1923년 5월의 일이다[잡지 어린이 발간은 1923년 3월]. 참고로 사진 속 '세계어린이운동발상지' 기념비는 2000년 12월 서울 천도교 수운회관(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자리에 세워졌다.

(기관지인)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힘쓴 종교가 천도교이다(1906.6).

오답 해설>

- ② 중광단을 조직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한 종교는 대종교이다(1911.3). 대종교는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홍암 나철(1863~1916)이 1909년 1월에 창시하였으며, 처음에는 명칭이 단군교였다가 이듬해인 1910년 7월 대종교로 개명하였다(민족 고유의 종교).
- ③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한 종교는 개신교[감리교]이다(1885.8). 배재 학당은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1858~1902)가 서울에 세운 근대식 중등 교육 기관이다.
- ④ 박중빈(1891~1943)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과 간척 사업)을 추진한 종교는 원불교이다(1916.4).
- ⑤ 일제의 통제에 맞서 사찰령 폐지 운동을 주도한 종교는 불교이다(1911.6).

40 - 도산 안창호

40.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일본의 침략 과정을 담은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 ②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여 여유당전서를 간행하였다.
- ③ 백산 상회를 설립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였다.
- ④ 친일 인사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하였다.
- ⑤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취임하였다.

정답> ⑤
 '여행권(여권)을 통해 본 독립운동가의 삶'이라는 제목 아래 '위 자료들은 독립운동가 (가)이/가 사용한 여행권으로 미국, 중국, 멕시코 등 많은 국가들을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은/는 여러 국가들을 이동하면서 공립 협회, 대한인 국민회, 흥사단 등을 조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937년 동우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후 지병이 악화되어 이듬해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도산 안창호(1878~1938)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흥사단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된 것은 1913년 5월의 일이다. 또 수양동우회는 1926년 1월에 결성된 흥사단 계열의 개량주의적 민족 운동 단체로, 1929년 11월에 흥사단과 통합하여 다시 동우회로 개칭하였다. 기관지로 동광(東光)을 발간하고 계몽 운동에 앞장선 바 일제가 1937년 6월부터 1938년 3월에 걸쳐 동우회에 관련된 180여 명을 검거하는 '(수양)동우회 사건'을 일으켰다. 안창호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취임한 바 있다(1919.6).

오답 해설>
 ① 일본의 침략 과정을 담은 한국통사를 저술한 인물은 백암 박은식(1859~1925)이다(1915.6).
 ②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여 여유당전서를 간행한 (대표적인) 인물은 위당 정인보(1893~1950)와 민세 안재홍(1891~1965)을 들 수 있다(1934~1938).
 ③ 백산 상회를 설립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한 인물은 백산 안희제(1885~1943)이다(1914).
 ④ 친일 인사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한 인물은 장인환(1876~1930)이다(1908.3). 그 직전 전명운(1884~1947)도 스티븐스를 향해 권총을 쏘았으나 격발되지 않았다. 그러자 전명운은 스티븐스에게 달려가 그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스티븐스가 이에 맞서 전명운을 때리려고 하는 순간 장인환이 총을 쏘았다. 하지만 첫발은 전명운의 어깨를 맞혔고, 연달아 쏜 두 발이 스티븐스를 맞추었다(이틀 후 사망).

41 - 일제 강점기 말의 일제 정책

41. 밑줄 그은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회사령을 제정하였다.
- ②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 ③ 경성 제국 대학을 설립하였다.
- ④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 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공포하였다.

정답> ⑤
 '이 자료는 중일 전쟁 이후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만든 황국 신민 체조 실시 요령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일제는 이 체조를 보급하기 위해 황국 신민 체조의 날을 정하고 전국 곳곳에서 강습회를 개최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중일 전쟁이 발발한 것은 1937년 7월로 이후 일제가 패망한 1945년 8월까지의 일제 강점기 말에 해당한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공포된 것은 1941년 2월의 일이다. 참고로 일제는 그전인 1936년 12월에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을 만든 바 있다.

오답 해설>
 ① 회사령이 제정된 것은 1910년 12월의 일이다. 이것은 이른바 '허가제 회사령'으로, 1920년 4월에 이르러 '신고제(계출제) 회사령'으로 바뀌었다(일본 자본과 회사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중국 군벌과 일제 사이에) 미쓰야 협정이 체결된 것은 1925년 6월의 일이다. 미쓰야 협정이란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 미야마쓰(1880~1959)와 중국 동삼성(만주)의 군벌인 장쥘린(1873~1928)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만주에서 한국인 독립운동을 체포하면 이를 반드시 일본 영사관에 넘길 것을 규정하고 있다(독립군 탄압).
 ③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된 것은 1924년의 일이다. 이때는 중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2년제 예과를 설치한 것이고, 2년 뒤인 1926년에 본과(3년제 법문학부와 4년제 의학부)를 설치하였다. 총장에는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이 취임하였다.
 ④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된 것은 1910년(또는 토지 조사령이 공포된 1912년)에서 1918년까지이다.

42 - 제주도의 역사적 사실(4·3 사건)

42.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역사를 품은 섬, (가)
다크 투어를 떠나볼까요?

출발 → **항파두리 항몽 유적** → **알뜨르 비행장 비행기 격납고** → **셋알 오름 일제 고사포 진지** → **송악산 해안 동굴 진지** → 도착

- 일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0시
- 출발 장소: 관덕정 앞 광장
- 유의 사항: 마스크, 도시락 지참 필수

※ 다크 투어: 전쟁이나 테러, 인종 말살, 재난처럼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여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여행, 역사 교훈 여행이라고 함.

- ①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곳을 알아본다.
- ② 프랑스군이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한 장소를 살펴본다.
- ③ 지주 문재철에 맞서 소작 쟁의가 일어난 곳을 찾아본다.
- ④ 4·3 사건으로 많은 주민이 희생된 주요 장소를 조사한다.
- ⑤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위해 조차를 요구한 곳을 검색한다.

정답> ④

'역사를 품은 섬, (가) 다크 투어*를 떠나볼까요?'라는 제목 아래 '항파두리 항몽 유적', '알뜨르 비행장 비행기 격납고', '셋알 오름 일제 고사포 진지', '송악산 해안 동굴 진지'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제주도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항파두리 항몽 유적은 고려 시대 삼별초의 대몽 항쟁과 관련된 유적이고, 이후 세 곳은 일제 강점기 말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제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유적(군사 시설)이다.

*다크 투어: 전쟁이나 테러, 인종 말살, 재난처럼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여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여행. 역사 교훈 여행이라고 한다.

4·3 사건이 발생한 곳은 제주도이다. 즉 4·3 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오답 해설>

- ① 정약전(1758~1816)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곳은 흑산도(지금의 전남 신안군에 딸린 섬)이다(1814, 조선 순조 14).
- ② 프랑스군이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한 곳은 강화도이다(병인양요, 1866.10).
- ③ 지주 문재철의 횡포에 맞서 농민들이 소작 쟁의를 벌인 곳은 전남 신안군 암태면에 딸린 섬, 암태도이다(1923.8~1924.8, 암태도 소작 쟁의).
- ⑤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위해 조차를 요구한 곳은 절영도(지금의 부산 영도)이다(1897.7). 하지만 독립 협회의 활약으로 러시아의 요구는 저지되었다(1898.2).

43 - 한국 광복군

43.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인도 전선에서 (가)이/가 활동에 나선 이래, 각 대원은 민족의 영광을 위해 빗발치는 탄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고초를 겪으며 영국군의 작전에 협조하였다. (가)은/는 적을 향한 육성 선전, 방송, 전단 살포, 포로 신문, 정찰, 포로 훈련 등 여러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영국군 당국은 우리를 깊이 신임하고 있으며, 한국 독립에 대해서도 동정을 아끼지 않고 있다. 충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청년 동지들이 인도에서의 공작에 다수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 「독립신문」 -

- ① 청산리에서 일본군에 맞서 대승을 거두었다.
- ②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 ③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 ④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흥경성에서 승리하였다.
- ⑤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펼쳤다.

정답> ②

'인도 전선에서 (가)이/가 활동에 나선 이래, 각 대원은 민족의 영광을 위해 빗발치는 탄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고초를 겪으며 영국군의 작전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은/는 적을 향한 육성 선전, 방송, 전단 살포, 포로 신문, 정찰, 포로 훈련 등 여러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영국군 당국은 우리를 깊이 신임하고 있으며, 한국 독립에 대해서도 동정을 아끼지 않고 있다. 충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청년 동지들이 인도에서의 공작에 다수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가) 부대'는 한국 광복군임을 알 수 있다(1940.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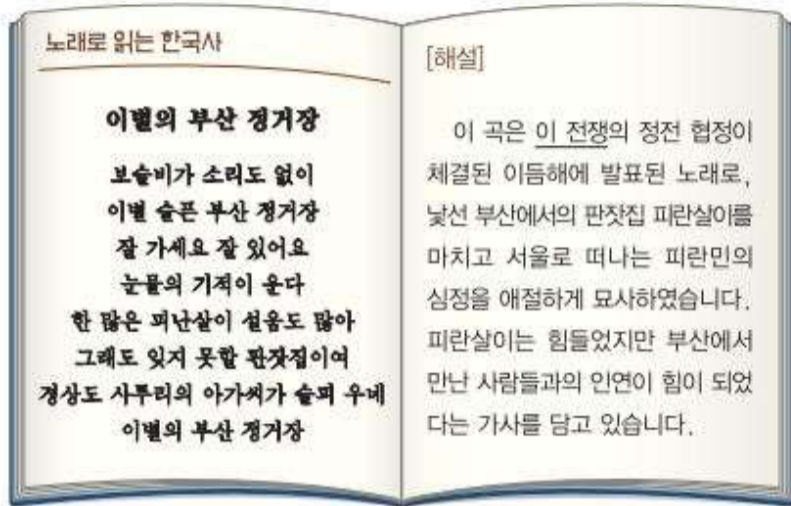
한국 광복군은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인 1945년 초부터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같은 해 3월 국내 정진군 총사령부 조직). 즉, 미국 전략 사무국(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의 도움을 받아 1945년 8월 18일 수도 서울 탈환을 목표로 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동년 8월 15일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작전이 무산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청산리에서 일본군에 맞서 대승을 거둔 부대는 김좌진(1889~1930)이 지휘한 북로 군정서군 등의 독립군 연합 부대이다(1920.10.21~26).
- ③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한 부대는 한국 독립군(지청천 총사령)이다(1932.9-11).
- ④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흥경성에서 승리한 부대는 조선 혁명군(양세봉 총사령)이다(1933.6).
- ⑤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펼친 부대는 동북 인민 혁명군이다. 동북 인민 혁명군은 1933년 9월 중국공산당 만주성 위원회의 주도로 조직된 무장 부대로, 다수의 한국인이 가담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44 - 6·25 전쟁

44. 밑줄 그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②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해체되었다.
- ③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 ④ 비상 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 ⑤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 파동이 일어났다.

정답> ④

'노래로 읽는 한국사'라는 제목 아래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제시되어 있다. 해설에 '이 곡은 이 전쟁의 정전 협정이 체결된 이듬해에 발표된 노래로, 낯선 부산에서의 판잣집 피란살이를 마치고 서울로 떠나는 피란민의 심정을 애절하게 묘사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피란살이는 힘들었지만 부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이 힘이 되었다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전쟁'은 1950년 6월에 발발해 1953년 7월에 정전 협정의 체결로 중지된 '6·25 전쟁'임을 알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개헌안이 통과된 것은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7월의 일이다(1952.7.4).

오답 해설>

- 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것은 1953년 10월의 일이다(1953.10.1).
 - ②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해체된 것은 1949년 8월의 일이다(1949.8.31).
 - ③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이 (처음으로) 선출된 것은 1972년 12월의 일이다(1972.12.5~1980.10.27)*.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총 4차례이다. 1972년 12월 23일 제8대 대통령 박정희, 1978년 7월 6일 제9대 대통령 박정희, 1979년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1980년 8월 27일 제11대 대통령 전두환이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되었다(단독 후보에 찬성이 거의 99%).
- ⑤ 국가보안법 개정안(신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 파동이 일어난 것은 1958년 12월의 일이다(1958.12.24, 일명 '2·4 파동').

45 - 진보당 사건

45. 밑줄 그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

1. 이 사건은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공소 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 국가 변란 혐의로 기소를 하였고 ……

:

5. 이 사건은 정권에 위협이 되는 야당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표적 수사에 나서 극형인 사형에 처한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 유린이자 정치 탄압 사건이다.

6. 국가는 ……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조사보고서」 -

1948	1954	1960	1965	1969	1974
(가)	(나)	(다)	(라)	(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사사오입 개헌	4·19 혁명	한일 기본 조약	3선 개헌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②

1에서 '이 사건은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공소 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 국가 변란 혐의로 기소를 하였고'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5에서 '이 사건은 정권에 위협이 되는 야당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표적 수사에 나서 극형인 사형에 처한 것으로 민주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 유린이자 정치 탄압 사건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6에서 '국가는 ……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라는 표현에서 주어진 자료에서 밑줄 그은 '이 사건'이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8년 1월에 발생한 '진보당 사건'을 가리킨다(진보당은 1956년 11월 창당). 그리고 당수인 죽산 조봉암(1898~1959)은 1959년 7월에 사형을 당하였다. 참고로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조봉암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연표에서는 사사오입 개헌이 있었던 1954년 11월에서 4·19 혁명이 일어난 1960년 4월 사이의 기간인 '(나)'에 해당한다.

46 -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실

46. 밑줄 그은 '이 정권'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양심 선언문

들으라! 우리는 유신 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합법을 가장한 유신 헌법의 모든 부조리와 악을 고발한다. 우리는 유신 헌법의 비민주적 허위성을 고발한다. …… 우리 대한 학도는 민족과 역사 앞에 분연히 선언한다.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후퇴치 못하고 이 민족을 끝까지 못살게 군다면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뜨겁게 외치는 이 땅의 모든 시민의 준엄한 피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 ① 신민당사에서 YH 무역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였다.
- ② 민주 회복을 위한 개헌 청원 백만인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③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내세운 6·10 국민 대회가 개최되었다.
- ④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계기로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 ⑤ 긴급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정답> ③

'양심 선언문'이라는 제목 아래 '들으라! 우리는 유신 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합법을 가장한 유신 헌법의 모든 부조리와 악을 고발한다. 우리는 유신 헌법의 비민주적 허위성을 고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우리 대한 학도는 민족과 역사 앞에 분연히 선언한다.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후퇴치 못하고 이 민족을 끝까지 못살게 군다면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뜨겁게 외치는 이 땅의 모든 시민의 준엄한 피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유신 헌법'이라는 표현을 통해 주어진 자료 속에서 밑줄 그은 '이 정권'은 박정희 정부를 가리킴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주어진 자료인 '양심 선언문'은 1975년 4월 11일 서울 농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대회에서 자결한 김상진 열사(1949~1975)의 것이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내세운 6·10 국민 대회가 개최된 것은 전두환 정부 말기인 1987년 6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신민당사에서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농성을 한 것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8월의 일이다(1979.8.9~11).
- ② 민주 회복을 위한 개헌 청원 백만인 서명 운동이 전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3년 12월의 일이다(1973.12.24~1974.1.8). 장준하를 비롯한 함석헌, 계훈제, 백기완 등 각계 재야 민주 인사들이 주도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날로 확산되어 가는 개헌 운동을 막고자 1974년 1월 1일 긴급 조치 1호를 선포하였다. 참고로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2월에 치러진 제12대 국회 의원 선거(1985.2.12)에서 제1 야당으로 급부상한 신민당에 의해 같은 해 12월부터 '직선제 개헌 1천만 명 서명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바 있다.
- ④ 야당 총재의 국회 의원직 제명을 계기로 민주 항쟁이 일어난 것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의 일이다(1979.10.16~20). 이 민주 항쟁이 곧 부마 민주 항쟁이다.
- ⑤ 긴급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이 (재야인사들에 의해) 발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6년 3월의 일이다.

47 - 조선 시대 외부 세계와의 관계

47. ㉠~㉣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역사 돋보기

조선이 만난 이방인

조선 전기에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류큐 등의 아시아 국가에 주로 국한되어 있었다. ㉠조선인의 외부에 대한 인식은 이들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고, 조선은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 이외의 세계에서는 낯선 존재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 지리 지식의 확대와 더불어 조선인의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점차 넓어져 갔다. 조선과 서양인의 만남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과 일본을 오가던 ㉡서양 선박이 난파하여 조선에 표착한 경우이다. 둘째, 크리스티교 선교를 목적으로 ㉢선교사가 직접 조선에 파견되는 경우이다. 셋째, 서양인이 ㉣조선의 해안 측량을 목적으로 해안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경우이다. 넷째, 조선과의 ㉤교역을 목적으로 서양의 상선이 접근하는 경우이다.

- ① ㉠ - 해동제국기의 작성 목적을 파악한다.
- ② ㉡ - 하멜 표류기의 내용을 분석한다.
- ③ ㉢ - 프랑스 파리 외방 선교회의 활동을 알아본다.
- ④ ㉣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된 과정을 조사한다.
- ⑤ ㉤ - 제너럴 셔먼호 사건 관련 자료를 찾아본다.

정답> ④

'조선이 만난 이방인'이라는 제목 아래 '조선 전기에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류큐 등의 아시아 국가에 주로 국한되어 있었다. 조선인의 외부에 대한 인식은 이들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고, 조선은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 이외의 세계에서는 낯선 존재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조선 후기에 들어 지리 지식의 확대와 더불어 조선인의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점차 넓어져 갔다. 조선과 서양인의 만남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과 일본을 오가던 서양 선박이 난파하여 조선에 표착한 경우이다. 둘째, 크리스티교 선교를 목적으로 선교사가 직접 조선에 파견되는 경우이다. 셋째, 서양인이 조선의 해안 측량을 목적으로 해안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경우이다. 넷째, 조선과의 교역을 목적으로 서양의 상선이 접근하는 경우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된 것은 조선 태종 2년인 1402년의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 최고(最古)의 지도이다.

오답 해설>

- ① 신숙주(1417~1475)가 일본에 다녀와 해동제국기를 저술한 것은 조선 성종 2년인 1471년의 일이다.
- ② 네덜란드인인 헨드릭 하멜(1630~1692)이 일본 나가사키로 가다 태풍을 만나 제주도로 표착한 것은 1653년(효종 4)의 일이다. 하멜은 1666년(현종 7) 동료 7명과 함께 탈출에 성공하여 귀국할 수 있었다. 하멜 표류기[하멜 표류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하멜이 네덜란드로 귀국한 1668년의 일이다.
- ③ 프랑스 파리 외방 선교회[파리 외방 전교회]에서는 (19세기에 이르러) 조선에 직접 선교사를 파견하였다. 파리 외방 선교회는 아시아 지역 선교를 목적으로 1653년에 로마 교황청이 프랑스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창설한 가톨릭 포교 단체로, 1831년 브뤼에르 주교가 처음으로 조선 선교를 자임하고 부임하던 중 사망한 이래 앵베르(1797~1839), 샤흐탕(1803~1839), 페레올(1808~1853) 신부 등이 잇따라 파견되어 순교와 박해의 고난을 겪었다.
- 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조선 고종 3년인 1866년의 일이다(1866.7). 제너럴 셔먼호는 미국의 무역선으로 평양의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폭압적으로 통상을 요구하는 만행을 저지르다 평양 관민들에 의해 불태워졌다. 이후 신미양요의 발미가 되었다.

48 - 충북 충주의 역사적 사실

48.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인조가 이괄의 난으로 피란했어요.
- ② 견훤이 후백제의 도움으로 삼았어요.
- ③ 김윤후와 함께 관노들이 몽골군에 항전했어요.
- ④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였어요.
- ⑤ 박재혁이 경찰서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의거를 일으켰어요.

정답> ③

'이것은 1872년에 제작된 우리 고장의 지방도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임진왜란 때 신립 장군이 왜군과 맞서 싸우다 투신한 장소인 탄금대와 임경업 장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충렬사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있었던 사실을 말해 볼까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교사의 질문이 가리키는 '우리 고장'은 충북 충주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임경업(1594~1646) 장군을 모신 사당인 임충민공 충렬사는 충북 충주의 단월동에 위치한다.

(몽골의 제5차 침입 시에) 김윤후(?~?)와 함께 관노들은 충주성에서 몽골군에 항전하였다[충주성 전투, 1253(고종 40)]. 당시 70여 일에 걸친 몽골군의 공격을 받아 성안의 식량이 다 떨어지자, 김윤후(?~?)는 사졸들을 독려하기 이르기를, '만일 힘을 다한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관작을 내리겠다'고 하여 관노의 부적을 불사르고 노획한 소와 말을 나누어주었다. 이에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대적하여 결국 몽골군을 물리쳤다

오답 해설>

- ① 인조가 이괄의 난으로 피란한 곳은 충남 공주의 공산성이다(1624, 인조 2).
- ② 견훤(867~936)이 후백제의 도움으로 삼은 곳은 완산주, 즉 지금의 전북 전주이다(900).
- ④ 강주룡(1901~1931)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곳은 평양이다(1931.5.28).
- ⑤ (의열단원) 박재혁(1895~1921)이 경찰서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의거를 일으킨 곳은 부산이다(부산 경찰서, 1920.9.14).

49 - 노무현 정부 시기의 사실

49.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서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
- ② 국가 인권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 ③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되었다.
- ④ 중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 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정답> ⑤

'대통령, 63일 만에 직무 복귀'란 제목 아래 '오늘 헌법 재판소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국회가 제기한 탄핵 사유는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노무현 대통령(재임 2003.2-2008.2, 제16대)이 탄핵되었다 다시 복귀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었다가 같은 해 5월 14일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 사건이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2005년 5월 31일로, 노무현 정부 시기의 일이다(2009년 11월 30일까지 활동).

오답 해설>

- ① 서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된 것은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노태우 정부 시기의 일이다.
- ② 국가 인권 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2001년 11월 25일로, 김대중 정부 시기의 일이다.
- ③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줄여서 '민주노총')이 창립된 것은 1995년 11월 11일로, 김영삼 정부 시기의 일이다.
- ④ 중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된 것은 2015년 11월 10일로(같은 해 12월 20일 공식 발효), 박근혜 정부 시기의 일이다(2013.2~2017.3, 제18대).

50 -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

50.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2점]

저는 지난 6월 13일 역사적인 평양 방문을 이룩했습니다. 평양을 방문할 때 저는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땅을 처음으로 가게 된 감회도 컸고, 또 과연 이 회담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많은 염려도 갖고 북한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 지난 6월의 평양 회담 이후 우리 한국은 두 가지를 당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 두 번째 당면 목표는 50년 간의 단절과 불신과 적대로부터, 다시 교류와 신뢰와 동족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 대통령 스웨덴 의회 연설」-

- ①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②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 ③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 ④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
- 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을 최초로 실현하였다.

정답> ④

'저는 지난 6월 13일 역사적인 평양 방문을 이룩했습니다. 평양을 방문할 때 저는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땅을 처음으로 가게 된 감회도 컸고, 또 과연 이 회담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많은 염려도 갖고 북한을 방문했던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지난 6월의 평양 회담 이후 우리 한국은 두 가지를 당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 두 번째 당면 목표는 50년 간의 단절과 불신과 적대로부터, 다시 교류와 신뢰와 동족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6월 13일 역사적인 평양 방문'이라는 구절과 '○○○ 대통령 스웨덴 의회 연설'이라는 출처 등에서 주어진 자료 속 '○○○'은 '김대중'(1924~2009)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였고, 같은 해 12월 10일 스웨덴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단 조성에 합의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의 일이다. '6·15 (남북) 공동 선언' 결과 개성 공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2000년 8월로, 한국의 현대아산(주)과 북한 사이에 공업지구 건설이 합의되었다. 2002년 8월에 이르러 개성 공단 착공 추진이 최종 합의되었다. 참고로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6월에 개성 공단 착공식이 거행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남북 조절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1972년 7월로, 박정희 정부 시기의 일이다(7·4 남북 공동 성명).
- ②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은 1991년 9월로, 노태우 정부 시기의 일이다(1991.9.18).
- ③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회담이 (처음으로) 개최된 것은 2018년 4월로, 문재인 정부 시기의 일이다(2018.4.27).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총 네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가 2018년 4월 27일의 (제1차) 판문점 회담이었고, 두 번째가 2018년 5월 26일의 (갑작스런) (제2차) 판문점 회담이다. 세 번째는 2018년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 회담이다. 네 번째가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 회담'이다.
- 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을 최초로 실현한 것은, 1985년 9월로, 전두환 정부 시기의 일이다(1985.9.20~22).

- 이 상 -